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6年 2月

석사학위논문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이후 여배우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이승연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이후 여배우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makeup art of
different era as seen in Korean movies
- focusing on movie actress since 1950's -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이승연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이후 여배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선 주

이 논문을 뷰티디자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월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이승연

이승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순 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병 육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ABSTRACT	ix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제 2 장 영화와 메이크업 이론적 배경	4
제1절 영화의 이론적 고찰	4
1.1 영화의 개념과 영화의 탄생	4
1.2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의미와 역할	5
제2절 영화 메이크업	7
2.1 메이크업 정의와 영역	7
2.2 영화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8
제 3 장 시대별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13
제1절 1950년대	13
1.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3
1.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15
1.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9
제2절 1960년대	27
2.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27
2.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30
2.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35
제3절 1970년대	44
3.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44

3.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46
3.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51
제4절 1980년대	60
4.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60
4.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62
4.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67
제5절 1990년대	78
5.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78
5.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83
5.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89
제6절 2000년대	99
6.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99
6.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101
6.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04
 제 4 장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에 따른 이미지 표현	111
 제 5 장 결론	119
 참 고 문 헌	122

표 목 차

<표1> 195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8
<표2> 195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22
<표3> 196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34
<표4> 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38
<표5> 197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50
<표6>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54
<표7> 198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66
<표8> 198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70
<표9> 199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87
<표10> 199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93
<표11> 200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03
<표12>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107
<표13> 1950년대 이후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	112

그 림 목 차

<그림1> 최진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11
<그림2> ‘요화 장희빈’(1968)	11
<그림3> ‘금홍아 금홍아’	11
<그림4> ‘무릎과 무릎 사이’(1984)	11
<그림5> ‘겨울 나그네’(1986)	12
<그림6> 내추럴 메이크업	12
<그림7> Clean yellow 메이크업	12
<그림8> ‘오버 더 레인보우’(2002)	12
<그림9> ‘시집가는 날’(1956)	23
<그림10> ‘벼락감투’(1956)	23
<그림11> ‘춘향전’(1955)	23
<그림12> ‘옥단춘’(1956)	24
<그림13> ‘황혼열차’ (1957)	24
<그림14> 1950년대 메이크업 제1회 미스코리아	25
<그림15>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1953) 메이크업	25
<그림16>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	25
<그림17> 나일론(1953)	25
<그림18> 신생활복 착용(1955)	25
<그림19> ‘자유부인’(1956)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26
<그림20> ‘지옥화’(1958)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26
<그림21> ‘동심초’(1959) 최은희	26
<그림22> ‘동심초’ 엄앵란 스타일	26
<그림23> ‘또순이’(1963)	39
<그림24> ‘오발탄’(1961)	39
<그림25> ‘만추’(1966) 바바리 의상	39

<그림26> ‘만추’ 메이크업	39
<그림27> ‘초우’ (문희 데뷔작)	40
<그림28> 트위기	40
<그림29> 재클린 케네디	40
<그림30> 1960년대 메이크업	40
<그림31> 브리지트 바르도	41
<그림32> 염복순 화장품광고	41
<그림33> ‘춘향전’(1961)	41
<그림34> ‘성춘향’(1961)	41
<그림35> ‘로맨스 그레이’(1963)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42
<그림36> ‘로맨스 그레이’ 본 부인의 헤어스타일, 의상	42
<그림37> ‘육체의 고백’(1964)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42
<그림38> ‘육체의 고백’ 헤어스타일	42
<그림39> 윤복희 미니스커트	43
<그림40> ‘맨발의 청춘’(1964)	43
<그림41> ‘미워도 다시 한 번’(1968)	43
<그림42> ‘겨울부인’(1969)	43
<그림43> ‘분례기’(1971)	55
<그림44> ‘무녀도’ (1972)	55
<그림45> ‘토지’(1974)	55
<그림46> ‘삼포가는 길’(1975)	55
<그림47> ‘바보들의 행진’(1975)	56
<그림48> ‘별들의 고향’(1974)	56
<그림49> ‘별들의 고향’	56
<그림50> ‘고교얄개’(1976)	56
<그림51> 파라 포셋	57
<그림52> 1970년대 메이크업 캠페인	57

<그림53> 1970년대 메이크업	58
<그림54> 청바지, 장발, 통기타 문화	58
<그림55> ‘영자의 전성시대’(1975)	58
<그림56> ‘영자의 전성시대’ 메이크업, 의상	58
<그림57> ‘영자의 전성시대’ 헤어스타일	59
<그림58> ‘겨울 여자’(1977)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59
<그림59> ‘내가 버린 여자’(1978) 메이크업	59
<그림60> ‘내가 버린 여자’ 헤어스타일, 의상	59
<그림61> ‘길소뜸’(1985)	71
<그림62> ‘씨반아’(1986)	71
<그림63> ‘티켓’(1986)	71
<그림64>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	71
<그림65>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1987)	72
<그림66> ‘어둠의 자식들’(1981)	72
<그림67> ‘어우동’(1985)	72
<그림68> ‘무릎과 무릎 사이’(1984)	72
<그림69> ‘애마부인 3’(1985)	73
<그림70> ‘애마부인 7’(1992)	73
<그림71> ‘뽕’(1985)	73
<그림72> ‘변강쇠’(1986)	74
<그림73> ‘매춘’(1988)	74
<그림74> ‘매춘 2’	74
<그림75> 태평양화학 선클 광고(1982)	74
<그림76> 1980년대 메이크업	75
<그림77> 1980년대 메이크업	75
<그림78> 1980년대 메이크업	75
<그림79> 브룩 쉴즈	75

<그림80> 마돈나	76
<그림81> 소피 마르소	76
<그림82> ‘애마부인’(1982)	76
<그림83> ‘애마부인 2’(1983)	77
<그림84> ‘깊고 푸른 밤’(1985)	77
<그림85> ‘매춘’(1988)	77
<그림86> ‘장미 빛 인생’(1994)	94
<그림87> ‘개 같은 날의 오후’(1995)	94
<그림88> ‘산부인과’(1997)	94
<그림89> ‘초록 물고기’(1997)	94
<그림90> ‘쉬리’(1999)	95
<그림91> ‘미스터 맘마’(1992)	95
<그림92> ‘본 투 킬’(1996)	95
<그림93> ‘8월의 크리스마스’(1998)	95
<그림94> ‘해피 엔드’(1999)	96
<그림95> ‘연풍연가’(1999)	96
<그림96> ‘서편제’(1993)	96
<그림97> 화장품광고	97
<그림98> 맥 라이언	97
<그림99> 1990년대 메이크업	97
<그림100> ‘결혼이야기’(1992)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97
<그림101> ‘접속’(1997)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98
<그림102>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98
<그림103>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98
<그림104>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98
<그림105> ‘공동경비구역 JSA’(2000)	108
<그림106> ‘박하사탕’(2000)	108

<그림107> ‘오아시스’(2002)	108
<그림108> ‘취화선’(2002)	108
<그림109> ‘몽정기’(2002)	109
<그림110> 빛·질감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	109
<그림111> 펄·글로시 메이크업	109
<그림112> 복고풍 이미지	109
<그림113> ‘조폭 마누라’(2001)	110
<그림114> ‘가문의 영광’(2002)	110
<그림115> ‘친절한 금자씨’(2005)	110
<그림116> 1950~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4
<그림117>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5
<그림118> 198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6
<그림119> 199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7
<그림120>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8

ABSTRACT

The research on makeup art of different era as seen in Korean movies

- focusing on movie actress since 1950's -

Lee, Seung-Youn

Department of Beauty Desig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un-Ju)

As the mass media has been expanded and developed up to these days, the movie, above all, has taken the lead in various fashions. Inaddition, the

elevated cultural standard has promoted the public's interest in their appearan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ies, the field of makeup ar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veying the image of the public and movie stars, raising the value of aesthetic pleasure.

The author studied the makeup art as shown in Korean movies since 1950's and analyzed the popular trend of makeup art in relation 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movie storyline, and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The research also shows how the makeup art expresses and recaptures the image based on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ulture of Korean makeup art has been formed and influenced by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echnology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color television in

1980's. As the color revolution era starts since the Korean Olympic Games in 1988, fashion has become strongly influenced by television commercials.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is also one of the factors that has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makeup art. The makeup art shown in Korean movies reflects the public trend of makeup of the times.

The cycle of makeup trend shows the tendency to change more rapidly since late 1990's and it is because the public seeks for the look that matches their appearance and character.

In a word, the trend of makeup art through Korean movies since 1950's is related 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and actresses in the movies.

This research also included the study about the current trends such as the natural look and retro style and how these trends have been diversified and developed and how the current trends help the public seek for their own look. For this research, I studied how the makeup art in Korea has been developed by the medium of Korean movies and hope this study helps to forecast the future trend of makeup ar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 문화적 수준향상과 함께 정보전달이 빨라짐으로써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화장품 관련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메이크업 분야는 많은 대중 스타들의 이미지 전달의 한 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미적 욕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확대되고 보편화됨으로써 이 중 영화는 대중문화를 알리는 대중예술이며, 대중문화의 패턴, 패션, 그 외의 여러 유행을 주도하는 등 강력한 사회화의 영향력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첫째 형식이며¹⁾ 필름이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영상과 음성으로 기호화시켜 표현되며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이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메이크업은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의미와 가치가 생산되고 교환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대중매체로서의 영화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이 중간적 역할을 하면서 카메라의 각도나 움직임에 따라 부분적인 디테일까지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등장인물이 입고 나오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를 통해 그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면서 관객에게 영향을 주어 유행을 파생시킨다.

인물의 심리와 미의식뿐만 아니라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시대상과 함께 당시의 유행했던 흐름을 살펴보고 문화적인 것 뿐 아니라, 화장품 산업발달과

1) Garth Jowett & James Linton, Movies as mass communication, 김홍순(역), 「영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 나남출판, 1994), pp.115~123

대중적인 메이크업 경향이나 영화 속 토털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자신만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개성을 추구하는 개별화, 개성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대에 ‘복고풍’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메이크업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영화의 변천과정, 그리고 메이크업 경향과 화장품 산업발달이 가지는 문화적인 부분을 암시해줄 뿐만 아니라 시대별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 즉 보다 정확한 유행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자료 보존의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패턴이 현재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무한한 영감으로써 출처를 제공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전개될 메이크업의 변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부합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전반 및 한국의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론적 연구와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가 발명되기 시작한 계기를 통해 영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매체로서의 영화와 영화 메이크업, 이에 따른 영화 메이크업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영화 관련 논문과 저서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1950년대 이후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시대별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그리고 화장품 산업발달의 흐름과 연대별 메이크업 경향, 한국과 서구의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 메이크업을 분석하였다.

셋째,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영화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당시에 흥행률이 높고 시대상을 잘 반영하며 메이크업 패턴이 부각된 영화, 여배우를 중심으로 영화를 선정한 후 선정된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를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설정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혼란했던 사회가 점차적으로 안정되면서 서양영화가 수입되고 한국영화 제작에 발전하기 시작되었고 작품제작에 있어서도 장르와 소재가 다양해져 총제작편수가 증가하는 등 영화산업이 성장하였던 시기라는 점과 이로 인해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서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메이크업이 보편화된 시기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한국영화, 한국 여성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 관련된 논문, 서적을 통해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과 메이크업 특징을 파악하고 자료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에 관한 문헌, 선행연구자료, 잡지, 화장품 회사에서 발행된 향장지, 인터넷 검색, 영화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진을 수집하고 제시하였다.

제 2 장 영화와 메이크업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영화의 이론적 고찰

1.1 영화의 개념과 영화의 탄생

영화(motion picture, 映畫)는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畫像)을 스크린에 투영(投影), 움직임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로 만들어진 작품을 말하며 초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어의 ‘motion picture’를 직역하여 ‘활동 사진(活動寫眞)’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무비(movie), 시네마(cinema), 필름(film) 등으로도 불린다.

영화의 발명은 발명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재현코자 하는 인간의 꿈은 태어날 때부터 있어 왔다. 지금부터 2~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파나 알타미라의 라스코 동굴에는 다리가 8개인 황소의 벽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인류의 그와 같은 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초에 24개의 정지된 화상(frame)을 연속적으로 돌려 인간의 잔상(殘像) 현상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영화가 발명되기까지는 기원 2세기부터 시작하여 무척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 기계가 나타났지만 20세기를 잇는 우리시대의 최대문명의 산물은 사진술(寫眞術)의 발명이었다.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준 것은 영화이며 현실의 재현은 물론 꿈과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데 이바지 하였다.

1972년 리치오토 까뉴도(Ricciotto Canudo)는 영화를 활동사진 또는 영화극이 아닌 제7의 예술로 명명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의 등장을 옹호하고 나섰으며 더 나아가 영화는 독자적이며 총체적인 예술임을 최초로 주장한 참된 선구자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영화는 보는 그림과 귀로 듣는 소리의 도입으로 복합 표현 방식이며 1895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라프(cinematograph) 곧 촬영기, 영사기를 발명하여 작품은 「뤼미에르 공장의 출구」, 「열차의 도착」 등 무성 영화였지만 10여 편의 실사필름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돼 영화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다.

1927년 토키(Talkie) 영화인 「채즈싱어」가 미국에서 개봉된 후 보고 듣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소위 할리우드 시대를 맞아 스타, 영화스타를 지칭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영화는 1897년 인도, 중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사진이 영화로 정착되었으나 그 과정은 일본과는 다르게 을사보호조약(1904년)과 한일합방(1910년)이라는 굴욕적인 역사에 휘둘리면서 제작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영화의 기점이 된 활동사진 연쇄극(連鎖劇) <의리적 구토(1919년)>의 등장은 한국영화의 효시로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영화사의 시작도 100여년에 이른 것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영화도 오랜 역사와 수많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것으로 보여 진다.

1.2 영화에 나타난 매이크업의 의미와 역할

1895년 탄생한 영화는 인간의 시각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발명이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시청각을 통해 현실을 재생시켜 현실의 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잘 심어주는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며²⁾ 영화를 예술의 한 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로써 영화는 방대한 관객과 영상을 통한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다.

따라서 문화적인 수준을 반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매체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손 용, 「대중문화와 영화예술」, (월간)영화, 1998, 11-12, p.45

또한 메이크업, 의상, 머리장식, 문신 등 모두가 사회·문화적 유산이며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가능케 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대중매체로서의 영화는 특정 스타일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인물을 창조하거나 극 전체의 이미지를 이끌어내면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유행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극 중 인물, 배우, 그리고 실제 인물간의 차이는 겉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채 조작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스타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지만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니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는데 메이크업은 큰 영향력이 작용한다.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색상, 모양, 라인의 방향에 따라 감정, 역할 등을 암시할 수 있고 그 진행과정의 변화를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어 극 전반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영화에서 스타의 이미지는 유행의 한 전달매체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시점에서 이들을 매혹시켜 사람들의 모방심리와 동조심리를 자극해 하나의 호소력이 있는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서 유행은 일정 기간 내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호, 취미, 행동 양식, 사고방식 등을 의식적·무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동조현상으로 특정한 스타일의 유행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과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당대의 유행하는 것을 반영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가 표현하는 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영화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돋는다.

예를 들어 영화와 CF광고계의 ‘신드롬’을 일으킨 최진실은 귀여우면서도 깜찍한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앞머리를 내린 헤어스타일, 귀여운 모자, 편안한 의상 등 솔직하고 꾸밈없는 당찬 이미지로 여기에서 파생된 ‘짠순이’이라는 이미지까지도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스타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최진실 스타일은 유행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그림1>

따라서 그 시대의 미의식이 영화스타와 이미지를 받아들일 만큼 시대정신과 조화를 이루며 스타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지게 되고 매체를 통해 등장할 때 대중적인 스타일로 반영되면서 유행하는 메이크업들도 영화

속에 제시되게 되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예술매체로 부가되면서 질적·양적인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을 획득하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수단이 아니라 가장 접하기 쉬운 문화이자 산업으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관심 속에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이들이 표현하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 등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 2 절 영화 메이크업

2.1 메이크업 정의와 영역

화장은 영어의 메이크업(Make-up), 페인팅(Pa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퀴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으로 얼굴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결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 또한 타고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감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화장은 개화기 이후 일본에서 유입된 어휘로써 분, 연지 따위를 발라 얼굴을 곱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우리가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17세기 초 영국시인 리차드 크랏슈(Richard Crashaw)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미국 할리우드 전성기 때부터 기인한다.

메이크업은 상업적, 예술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화장·분장을 총칭하며 문화적으로 비언어 의사전달 수단의 하나이다.

그 영역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 메이크업, 방송, 영화를 위한

3) 최은기,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TV·영화 메이크업, 웨딩, 광고, 패션 메이크업과 무대에서 필요한 스테이지(Stage)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판타지(Fantasy) 메이크업, 특수 분장 등 전문성, 예술성을 요구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분장은 무대분장과 영상분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무대분장은 연극, 오페라, 무용극, 뮤지컬 등 그 외의 모든 분야의 이벤트 행사가 해당되고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메이크업을 과장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영상분장은 TV, 영화, CF광고 등 그 외의 모든 영상분야가 해당되고 카메라의 줌으로 인해 확대되어 보이므로 메이크업이 정밀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연극, 방송에 등장하는 배우에게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분석과 주제, 연출방향, 작가의도, 인물의 성격에 따라 직업, 연령, 기질, 시대, 사회적 환경 등 관객에게 전달하는 표현 도구가 될 것이다.

2.2 영화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화 메이크업은 대형스크린에 의해 얼굴이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땀구멍이나 흉터, 점, 솜털 등이 보일 경우 관객들에 불쾌감을 주거나 거부 반응을 줄 수 있어 표정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하는 꿈꾸함이 요구되며 연극분장과 같이 떨어져 있는 관객을 상대로 거리감을 극복하는 것과는 달리 색에 민감한 렌즈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섬세하면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

이처럼 메이크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확대되고 영화·연극·TV 등 대중 매체의 발달과 문화수요의 증대로 인해 배우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문직종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Make-up Artist)라는 전문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이자 분장을 통해 인물을 재창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흔히 ‘천의 얼굴을 창조해 내는 사람’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장과 구별되는 본격적인 분장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예를 들어 영화 <단종애사>의 분장은 정철, <요화 장희빈>의 분장은 홍동은, <유혹>의 분장은 송일근 등 분장사가 있었지만 분야는 대부분 제한적이었다.<그림2>

그 당시 성격에 따른 ‘순하다’, ‘부드럽다’, ‘날카롭다’라는 표현에 있어 눈 부분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단순한 분장, 즉 예전 한국분장은 이러한 부분만을 너무 강조시키는데 치중했고 현실 속에서 안방대화에만 그쳐 지루하고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다.

특히, 흑백 TV 시대인데다가 분장 재료가 없었기에 수준은 매우 낮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없어 주로 미용원에서 행해지기도 했고 연극인들이 동료들의 분장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분장사 ‘홍동은’ 역시 연극을 했었으며 60년대에 들어 영화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영화계로 옮겼고 단역배우로 출연하다가 극단에 있던 친구의 권유로 분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에도 <금홍아 금홍아> 등 약 250여 편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림3>

그리고 텔레비전 분장이 시작되면서 훨씬 활기를 띠게 되었고 1970년대가 되면서 분장은 전문영역으로 인식하여 외국에서 공부를하거나 도제식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컬러 TV 시대가 되자 보다 질적으로 높은 발전이 요구되었고 영화·연극·광고업계의 발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수요는 급격히 늘었고 이러한 1970, 80년대를 대표하는 이가자, 유지승, 박승철, 박준 등이 새로운 시대를 연 ‘1세대’ 디자이너였다.

예를 들어 영화 <무릎과 무릎 사이>는 박준이 해어디자인을 맡았고 <겨울나그네>의 해어디자인은 유지승이 맡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그림4, 5>

1980년대 말에는 메이크업 뷰티 아카데미나 사설 분장학원이 잇달아 생겨났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숫자도 증가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생겨나면서 연예인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으로 명성을 얻은 이경민(이경민 포레), 조성아(조성아 헤어폼), 김청경(김청경 헤어페이스), 정샘물(정샘물 인스파레이션), 이희(이희 헤어 & 메이크업) 등은 헤어를 보강했으며 전문 뷰티 살롱이 등장하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스타를 중심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아티스트들은 그 자체로도 스타 권력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은 신애라의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그림6>, 이영애 역시 Clean yellow 메이크업으로 깨끗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7>

또한 이희 원장은 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의 장진영 스타일링을 맡았고 <그림8>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정샘물, 투명 피부 메이크업으로 유명한 김청경 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우리 마음속에 전문가의 위치로 써 자리매김하고 유명한 스타들과 함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즘 들어 다양한 매체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 등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토털 뷰티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유망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1> 최진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http://kr.image.search.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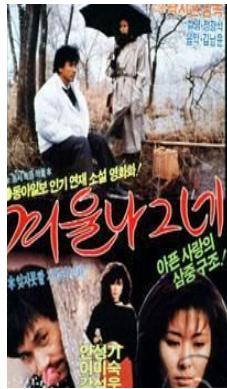
<그림2> ‘요화 장희빈’(1968)
(<http://www.koreafilm.or.kr>)



<그림3> ‘금홍아 금홍아’
(한국영화 80년·下 p.252)



<그림4> ‘무릎과 무릎 사이’(1984)
(<http://www.koreafilm.or.kr>)



<그림5> ‘겨울 나그네’(1986)

(<http://www.koreafilm.or.kr>)

<그림6> 내추럴 메이크업

(<http://www.leekyungmin.co.kr>)



<그림7> Clean yellow 메이크업

(<http://www.leekyungmin.co.kr>)



<그림8> ‘오버 더 레인보우’(2002)

(<http://www.movist.com>)

제 3 장 시대별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제 1 절 1950년대

1.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군에서 흘러나온 서양식품과 외제화장품은 인기를 끌었다. 극단적으로 신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깨뜨리고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의식은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가속화되어 갔으며 새 사회질서를 마련해 가는데 결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반사회의 대학관도 남녀차이를 넘어 능력을 가진 모두에게 개방되는 다수의 교육기관으로 변모해 갔다. 이 같은 교육발달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켰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혀 주었으며⁴⁾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 대표적 여성지인 여성계(1953.12), 여원(1954.10) 창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서구문물의 소개, TV의 대량보급, 영화의 보급은 해어, 메이크업, 패션 등 여성의 유행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영화계는 1949년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홍성기 감독의 <여성일기>는 최초의 천연색 영화가 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한국 최초의 컬러영화로 장차 기술의 축적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었다.

1950년대 외국 영화수입이 시작되고 중반부터는 안정적인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한국 영화제작도 발전하기 시작하여 후반에는 일대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

4) 김태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 변화」,(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5), pp.3 3~61

영화제작은 장르와 소재가 다양해져 한 해 100편을 넘는 작품이 제작되었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총제작편수가 150편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0년대 영화산업은 대폭 성장하였고 한국영화 발전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 때의 작품경향은 보수적 윤리관을 다룬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1955년, 조미령·이민 주연)>은 국도 극장에서 개봉돼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후에 사극영화의 봄을 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하였고 자유주의 풍조를 그린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은 윤리 의식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흥행기록을 세워 멜로드라마의 봄을 일으켰다. 이러한 한국영화는 멜로드라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자유부인>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으며 맘보, 차차차, 지르박, 사교춤 등이 유행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주둔으로 유통업소에 종사하는 직업여성이 늘어나 저급문화를 무조건 모방함으로써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서구화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1956)>, 홍일명 감독의 <벼락감투(1956)>가 초기 코미디영화의 대표작으로 <시집가는 날>은 제4회 아시아영화제에서 희극상을 받아 한국영화가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문호를 열었으며 다양한 장르적 접근과 시도로 19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로 이어진다.⁵⁾

<그림9, 10>

195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을 살펴보면 <춘향전>의 조미령은 단아하고 순종적인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졌고 <옥단춘(1957)>에 출연했던 김보애는 투명한 피부로 알려진 미인으로 화장품 광고에도 출연했으며, <황혼열차(1957)>의 김지미는 성적 매력, 동·서양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모두 갖춘 배우로 이 같은 신인배우가 발굴되며 <동심초(1959)>에 출연했던 최은희는 클래머러스한 체형과 단아한 한국적 여성상으로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다.<그림11, 12, 13>

5) 채정선, “한국 영화 포스터의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1990~2000년에 제작된 포스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pp.6~7

이 시기 서구에서는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의 굽고 진한 눈썹과 함께 짧은 헤어스타일로 사랑스럽고 소녀적인 이미지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는 베치미와 빨간 입술, 입가의 점, 관능적인 몸매와 몸짓,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풍만한 가슴 등 관능미와의 조화를 이룬 섹시 스타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1.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전쟁으로 국산 화장품산업은 위축되었는데 반면에 밀수된 수입화장품 PX (post exchange, 군대내의 매점) 유출품이 유입되었고 국산화장품 시장을 교란시켰다. 화장품의 종류로는 기초화장품으로 세안제와 크림류, 색조화장품, 기타 화장품(두발제품, 향유 등)으로 구분된다.

1950년대 중반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총천연색 영화가 상영되면서 핑크계의 피부색이 유행했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간색 립스틱이 핑크계통의 립스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56년 국내화장품업계 최초로 김보애가 모델로써 광고되었고 ABC 비듬약, 포마드가 생산되었으며 현재의 자외선 차단 크림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파라솔 크림’이 등장하였다.

<자유부인>을 통해서도 메이크업법이 유행되었고 2년 후 글래머 여배우 이빈화가 가슴 일부를 드러낸 파격적인 광고에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영화와 TV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다. 후반에는 영화관이 생기고 서구의 영향으로 인해 서구식 메이크업의 단순 모방으로 자연스럽기보다는 인위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과장된 메이크업이 인기였다.

1957년에는 제1회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면서 미스코리아 진 박현옥은 한복차림의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일과 진한 눈썹과 눈을 강조하고 곡선을 살린 입술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그림14>

1959년 미스 코리아 진 오현주가 유니버스 대회 지성과 위트로 미국 사람

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회 초부터 인기상, 포토 제닉상을 훑쓸었고 15위내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미인의 기준은 지성과 미모를 동시에 갖춘 건강한 미인상을 추구해 왔고 얼굴뿐만 아니라 ‘8등신’이라는 신체적 균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미용과 패션에도 눈뜨기 시작했다.

1950년 말에는 화장품회사 태평양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1958년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용 교양지 ‘화장계’를 창간하며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문화를 소개했고 1959년 영화배우 이민자는 ‘파라솔이 필요 없다.’라는 화장품광고 모델로 수영복 차림을 하고 등장한 것은 여성의 권리,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색조화장품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분이었는데 1959년 처음으로 해외 기술제휴에 의해 태평양 화학에서 코티분을 생산하여 국산제품의 품질을 혁신했고 각종 유성·건성 파운데이션을 비롯해 립스틱, 콤팩트, 네일 락카 등 메이크업 제품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의 유통은 잡화도매상을 통한 판매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⁶⁾

당시 메이크업은 화장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양영화에 의해 유행했던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보여준 메이크업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하면서 영화 <로마의 휴일(1953)>에서 오드리 헵번의 굵고 진한 눈썹과 아이라이너는 두껍게 그리고 입술은 풍만하고 붉게 볼터치는 핑크계열로 화사하면서도 지적이고 소녀같은 이미지로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 밝은 피부톤에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붙여 강조하였고 길고 확실한 아이라이너를 그렸으며 <그림15> 또한 콜드크림을 사용해 윤기가 흐르고 번들거리는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윤기나는 도색적인 새빨간 입술과 아이라이너를 진하고 길게 끝을 올려 그렸고 인조 속눈썹을 붙인 후 마스카라를 강하게 칠했

6) 조명자, “한국 화장 문화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43~44

으며 각진형의 눈썹, 입 주위의 섹시점, 밝은 금발의 헤어스타일로 야성적이고 정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그림16> 이들의 입체적이고 진한 메이크업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현재까지도 모방되어져 왔다.

헤어스타일은 짧은 머리가 유행하는 반면 긴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빗어 올린 스타일이 유행했고 10대와 20대 초반의 소녀들은 말꼬리 모양의 포니테일 스타일에 리본을 묶었는데 이것은 1950년대를 상징하는 스타일이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실용적인 나일론(Nylon)이 등장하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한복지, 양복지 등 의복의 어느 곳이나 사용되어 왔다.

<그림17>

1955년에는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재건복(신생활복)을 입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양장을 일상화시키기에 이르렀고<그림18> 1956년 여름에는 양장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한복에 비해 양장이 비교적 경제적이고 활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1957년에는 변화가 심하지 않은 기본형인 디자인인데, 스커트 길이는 무릎 바로 밑이 샤넬라인(Chanel line)이 최신유행으로 등장하였으며, 서구의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 나타난 195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1> 195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950년대-한국영화의 성장기(중흥기)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문화의 영향 직업여성 증가, 저급문화 모방 영화보급, TV보급, 여성지-여원 등 창간 나일론(Nylon) 등장
영화적 요인	영화제작의 출발점 외국에서 수입한 총천연색 영화 상영 <자유부인>-자유주의 풍조, 윤리 의식 문제 제기-멜로드라마의 유행 서양영화의 오드리 헨번, 마릴린 먼로 등 영화스타의 모방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수입 화장품, PX 유출품-국산화장품 시장 교란 태평양 화장품에서 블란서 '코티'사와 기술제휴 ABC 비듬약, 크림, 포마드 생산
메이크업 특징	밝은 피부표현 두껍고 진한 눈썹 살구빛, 살색 아이섀도우 길고 뚜렷한 아이라인 인조속눈썹 붙임-인위적인 메이크업 입술은 붉은색-핑크계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조미령-단아한 체구와 조신한 이미지 김지미-입체적인 얼굴과 현대적인 이미지 최은희-동양적·고전적인 이미지
사진	

1.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전쟁의 아픔을 거치면서 서양영화와 물품들이 들어와 서구식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영화계에도 발전이 시작되었다. <자유부인>은 교수부인이 보여주는 춤바람이나 불륜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도덕적 위반행위를 둘러싸고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지식인들의 반발과 도시화, 소비주의의 물결 등 흐름을 배경으로 멜로드라마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지옥화>는 근대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성적 물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여주인공의 정적인 이미지와 양공주라는 존재의 유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간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이 시대의 생존 본능과 남성들의 공격성 또한 비극을 초래하는 1950년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의 두 편의 영화와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동심초>는 전통적인 사회의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대적 교육을 받았지만 당시 사회의 제약 속에서 가정의 현모양처로 주저앉아야 했던 한 부류의 신여성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3편의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여기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부인>의 작품내용은 여주인공인 선영(김정임)은 대학교수 부인으로 시대의 유행에 따라 춤바람을 피우는데, 교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부인이 반성하고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다. 한편 교수는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졌으나 마침내 부인도 교수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여주인공 선영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핑크계의 밝은 피부톤에 눈썹은 두꺼우면서 진하게 표현하고 곡선형으로 그려 여성적이며 우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오렌지톤을 눈두덩이에 바르고 푸른빛의 아이섀도우로 쌍꺼풀라인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또한 눈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굽고 눈꼬리를 길게 올려 그렸다. 코 부분에 약간의 음영이 있어 뚜렷해 보이고 붉은 톤의 입술로 곡선을 살리며 입가에 마릴린 먼로의 애교점을 연상케 하는 점

이 있어 당시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서구식 메이크업이 영화에 제시되기도 하고 모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대중들의 호응을 받아 여주인공의 메이크업과 사교춤이 유행되었다.<그림19>

또한 선영은 양장점에 취직한 이후 양장을 하고 춤을 배우고 밤늦게 남자들과 거리를 돌아다는 근대적 성적 주체로 변모하고 양장은 단순한 스타일 변모가 아닌 정숙한 여성에서 유혹적인 여성으로의 이미지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 간의 성애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댄스홀의 문화적 분위기 안에서 자유부인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족자아를 벗어나 개인주의적이면서 근대적 자아를 인정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옥화(1958)>의 작품내용은 양키물건 장수인 김학과 양공주 최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들의 생활은 자연히 부조리할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두 사람은 쫓기는 몸이 된다.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던 그들은 끝내 시궁창에 전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친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극에 달하고 물질적인 가치만이 송상되는 전후 한국사회의 황폐함을 표현하기 위해 양공주와 밀수꾼들, 주한미군이 뒤엉켜 있는 기지촌은 전쟁이 끝난 뒤 물밀 듯이 밀려들어온 서구의 소비상품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양공주라 불리는 여성들은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팔고 그 대가로 서구 문물을 향유하고 부패한 듯하면서도 매혹적인 이 공간에 대한 묘사는 당시 한국사회가 기지촌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왜곡된 근대화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여주인공인 양공주 쏘냐의 메이크업을 보면 눈썹은 진하고 두꺼우면서 각진형으로 그려 세련되고 여성스러움을 연출하였다. 또한 아이라이너를 굽고 눈꼬리를 올려 그리고 눈매를 강조했고 속눈썹과 마스카라를 이용해 풍성하고 뚜렷한 눈매를 표현하면서 입술은 립라이너로 아웃커브의 곡선처리를 하고 진한색의 립스틱을 발라 섹시함을 드러냈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가 들어간 단발로 세련미를 보였고 의상은 점잖은 양장이 아닌 엉덩이까지 옆구리가 패인 짧은 치마나 몸매가 드러나 보이는 치

마, 수영복 그 외의 액세서리로 높은 뾰족 구두, 선글라스, 귀걸이, 양담배, 껌을 씹고 어깨를 으쓱대는 서구적인 모습은 천박한 이미지로 메이크업 역시 인위적이면서 매혹적인 이미지, 또한 팝므 파탈형⁷⁾ 여성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그림20>

<동심초>의 작품내용은 전쟁미망인 이숙희 여사와 출판사 김상규 전무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나 김 전무에게는 출판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약혼녀가 있고, 이 여사에게는 딸 경희가 있다. 경희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김 전무와의 재가를 권유하지만 사회적 관습과 윤리적 도덕관에 괴로워한다. 결국 이 여사와 김 전무는 서로 진실로 사랑하면서도 끝내는 헤어지는 길을 택한다. 이 여사는 서울 집을 팔아 부산으로 떠나고 몸져 누워있던 김 전무는 이 여사가 타고 있는 기차를 바라보며 몸부림친다.

여주인공인 이숙희(최은희)는 전쟁파부가 양장점을 하다가 망한 후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메이크업은 자연그대로의 눈썹과 아이라인과 마스카라, 연한 톤의 입술이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드러냈고 올린 머리와 한복차림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로 사회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그림21> 경희(엄앵란)는 단발머리에 양장을 하고<그림22> 김상규의 약혼자인 옥주(도금봉)는 부잣집의 딸로 양장차림에 뾰족 구두, 짧은 커트 머리로 서양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차를 운전하는 등 외적으로는 세련되고 서구화된 이미지로 분별력 있고 착하며 희생적인 여성으로 표현되어 진다.

따라서 1950년대에는 외화가 수입되고 서구문물의 소개로 인한 서구화된 여성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서구식 메이크업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 시기에 성행했던 영화 <자유부인>과 <지옥화>에서도 뚜렷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동심초>에서는 여주인공의 지고지순하고 고전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였지만 현재

7) 팝므 파탈(Femme fatale)형: 흔히 ‘요부’라 불리는,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불행을 야기시키는 여성들의 총칭

의 메이크업보다는 인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되며 당시의 한국적 정서에 맞는 여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아래의 <표2>는 195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2> 195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자유부인	지옥화	동심초
제작년도	1956	1958	1959
장르	멜로드라마(통속)	통속	통속
감독	한형모	신상옥	신상옥
배우	김정립, 노경희, 박암	최은희, 김학, 조해원	최은희, 엄앵란, 김진규
극중인물/ 이미지	대학교수부인/ 정숙-유혹적인 이미지	양공주/ 세련되고 매혹적인 이미지	전쟁과부/ 한국적·고전적 여성 이미지 딸/ 청순한 이미지
메이크업 특징	밝은 피부톤 굵고 진한 눈썹 눈꼬리 올려 아이라이너 곡선을 살린 입술 표현 애교점	두껍고 진한 눈썹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풍성한 눈매 강조 아웃커브의 붉은 입술 표현	있는 그대로의 눈썹과 아이라이너 표현 연한 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특징	웨이브가 있는 올린 머리	굵은 웨이브 단발	올린 머리/단발머리
의상 특징	한복차림/양장	어깨의 노출, 몸매가 드러나는 치마, 수영복	한복차림/양장
기타 액세서리		높은 뾰족 구두, 선글라스, 귀걸이, 양��배	뾰족 구두



<그림9> ‘시집가는 날’(1956)



<그림10> ‘벼락감투’(1956)

(영화 포스터로 보는 50~60년대 흘러간 명화 pp.21~23)



<그림11> ‘춘향전’(1955)

(영화 포스터로 보는 50~60년대 흘러간 명화 p.17)



<그림12> ‘옥단춘’(1956)

(영화 포스터로 보는 50-60년대 훌러간 명화 p.19)



<그림13> ‘황혼열차’ (1957)

(영화 포스터로 보는 50-60년대 훌러간 명화 p.19)



<그림14> 1950년대 메이크업
제1회 미스코리아



<그림15> 오드리 햅번
'로마의 휴일'(1953) 메이크업



<그림16>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 헤어



블라우스



<그림17> 나일론(1953)
<그림18> 신생활복 착용(1955)



<그림19> ‘자유부인’(1956)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http://www.koreafilm.or.kr>)



<그림20> ‘지옥화’(1958)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한국영화와 근대성 p.35)



<그림21> ‘동심초’(1959) 최은희

(<http://www.koreafilm.or.kr>)

제 2 절 1960년대

2.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960년 4.19혁명, 1961년의 5.16 쿠데타는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을 가져왔으며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1962년 이후(1962~1971) 2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공업화 기반이 조성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 문화수준의 지표가 되는 전기, 전화, 신문, 텔레비전⁸⁾ 및 전기기구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성장단계의 사회에서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기능은 국민들의 의·식·주 및 언어생활 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였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도입되었고 교통 및 확대, 대중매체의 대량보급이 이루어진 시기였다.⁹⁾

한편 한국영화계는 영화법 제정과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의 여유를 찾는 과정에서 영화사상 최초로 1,5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되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공존하면서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자취는 영화계에 비로소 총천연색 대형화면(시네마 스코프:Cinema scope)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또한 TV보급이 확대되어 관객이 안방으로 분산되면서 TV가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

작품경향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을 다룬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1960)>, 박상천 감독의 <또순이(1963)>는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함

8) 1961년 국영 방송인 KBS를 선두로 1964년 동양방송, 1969년 문화방송개국 등 잇따른 방송국 개국으로 방송의 채널이 다양화 되었고 이로 인해 TV보급률도 확산되어 갔다.

9)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8, p.17

경도 처녀인 모범적인 여인의 인간승리를 그려 대히트하면서 ‘또순이’라는 이름이 사회에 널리 유행하였고 <그림23>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1962)> 등 멜로드라마가 제작 되었고 중반에는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세대들의 스타일을 추구하여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묘사하면서 ‘청춘영화’라는 장르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며 신성일과 엄앵란이 커플을 이루어 등장하는데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1964)>은 청춘영화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 영화에서 신성일의 모습은 가죽잠바를 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청바지 등의 의상과 짧은 머리, 반항적인 눈빛으로 한국의 제임스 딘이 탄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고 근 20년간 전성기를 구축하였다. 그는 여성들의 우상이었고 청년들의 영웅이었으며 가난했지만 순정과 반항이 교차하는 그 시대정서를 대표하는 청춘상으로 그는 대중을 휘어잡았다.

반면에 엄앵란은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항상 치마를 입고 예쁘게 웃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해 본적이 없는 듯한 그런 요조숙녀로 발랄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졌다. 마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영화처럼 주인공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 젊은 층에게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후반에는 신파적인 경향을 띄게 되는데 당시 최고의 홍행을 기록했던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 번(1968)>이 대표적이다.¹⁰⁾

이 작품의 성공으로 <속 미워도 다시 한 번(1969)>이 제작되었고 비슷한 스토리 전개를 가진 아류작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여기서 등장하는 문희는 청순가련한 순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문희의 이미지는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스타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소설을 영상화한 ‘문예영화’ 붐이 일기 시작했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들이 영화화되었고 주체의식과 예술성에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1961)>,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이만희 감독의 <만

10) 민병기 외, 「한국영상문학」, (서울: 문예마당, 1998), pp.178~179

추(1966)>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예영화는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영화제작의 기초가 되었다.¹¹⁾<그림24>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최은희는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의 이미지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하며 후반부의 주변인물인 미장원 친구, 성황택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소품(양산, 우산, 피아노)을 사용하고 교회 다니고 극장에서 데이트, 양장점에 연다는 측면에서 신여성의 세련된 면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만추>에서 주인공이었던 배우 문정숙은 깊어가는 가을의 공원, 쓸쓸한 벤치주변의 낙엽과 바람에 바바리 코트 깃을 올리고 벤치에 앉아 누군가 기다리는 우수에 젖은 서늘한 눈매, 우수와 정열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직도 촉촉하게 적셔주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문정숙의 바바리 의상과 단발머리의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우면서도 뚜렷한 아이라이너와 속눈썹으로 인형처럼 눈매를 강조하여 곡선을 살린 입술선과 붉은 브라운계의 칼라로 가을의 우수적인 이미지가 연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그림25, 26>

1960년대 한국영화의 최전성기 시절 이른바 “트로이카”란 개념을 만들어내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문희는 청초한 외모로 감각적인 영상이 돋보이는 <초우(1966)>로 데뷔했고 <유정(1966)>으로 데뷔한 남정임은 발랄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섹시한 입술이 매력 포인트였으며 세련된 연출로 인정받은 <안개(1967)>의 윤정희는 시원시원한 서구적인 미모와 연기력으로 1960년대를 대표하는 ‘트로이카’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림27>

또한 청춘영화의 막을 연 엄앵란이 있었고 문정숙은 현대적이고 애상적인 용모와 음성으로 모던한 이미지로 스타덤을 구축했으며 <갯마을>에 출연했던 고은아는 청순하고 고결하며 우아한 이미지를 갖추었고 엄앵란과 김지미가 더 이상 처녀역이 어려울 시점에서 청춘스타로 떠올랐다.

11) 영화진흥공사, 「사진으로 본 한국영화 60년」, (서울: 교육과학사, 1980), p.42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글래머 스타 김혜정은 <밤이 무서워>에서 목욕하는 장면에 글래머의 몸매를 과시하고 풍만한 에로티시즘으로 스크린을 휘어잡았다면 <아름다운 악녀>에 출연했던 최지희는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감수성으로 1960년대를 대변하는 스타였다.

한편, 서구에서는 틴에이저들의 우상으로 등장한 트위기(Twiggy)는 짧은 소년형 커트머리와 가냘픈 몸매, 주근깨가 있는 모습으로 인형같이 커다랗게 강조된 눈과 동시에 조그마한 입술은 다소 부조화스런 느낌의 특이한 분위기가 새로운 스타로 만들었다. <그림28>

미국에서는 존 F 캐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채클린 캐네디(Jacqueline Kennedy)가 깨끗한 피부와 눈을 강조하고 브라운톤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고상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그림29>

2.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화장품 대량생산과 대량판매 체제를 구축한 시기로 국내 화장품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1962년부터는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마스카라 등이 선보이면서 메이크업 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화장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여성잡지는 메이크업과 화장품에 관한 정보전달과 광고지 역할을 겸하였는데 계절별 미용과 메이크업, 특정 시기나 모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등이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선 스크린’ 화장이라고 할 수 있다.¹²⁾

화장품업계는 정부의 국산 보호정책에 따라 근대 화장품업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가운데 화장품 산업 육성책을 포함시켜 외제품의 판매금지법의 영향으로 외국산 화장품이 줄어들고 60여개에 지나지 않았던 화장품 제조회사가 100여개를 넘게 되었다.

유통 경로는 체인스토어 제도와 방문판매 제도였고 1960년대 중반으로 접

12) 김용미, “해방 이후 한국 화장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34

어들면서 외판원을 채용해 방문판매로 변화시키면서 급격한 확대 추세를 보였다.

색조메이크업을 사치로 여기면서 직업여성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했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얼굴에 맞고 세계 유행에도 잘 반영하는 메이크업 유형을 창안하여 보급시키기 위해 태평양화장품은 1960년대 말부터 색조메이크업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메이크업은 일반여성들이 부자연스러운 하얀 분 화장에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바뀌고, 기초화장을 중심으로 한 피부표현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에서는 일반사람들에게 있어 최대의 오락이었기에 외국영화의 영향으로 서양여성의 뚜렷한 윤곽에 대한 동경으로 서구식 메이크업이 모방되어져 우리나라 여성의 평면적인 얼굴을 입체적인 얼굴로 보이게 하는 입체메이크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그림30>

당시 동양인에게 푸른색 아이섀도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나 대담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성잡지에서도 바르는 법이 소개되었고 한국인의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여성들은 여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처럼 눈을 크게 보이기 위해 쌍꺼풀 주위에만 얇은 그린이나 블루 컬러 등으로 크고 검은 눈을 강조하는 아이섀도우를 하였고 과장된 인조속눈썹을 붙이고 눈 꼬리가 올라가도록 아이라인을 길게 그린 다음 마스카라로 올려주었다. 입술은 투명색이나 옅은 베이지, 브라운색, 핑크색 등으로 칠하고 입술라인은 아웃커브로 그려 눈 메이크업과 맞추어 육감적인 모습을 강조했으며 반항적이면서도 섹시한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행하였다. 그리고 초점 잊은 눈빛과 육감적인 몸매, 벌어진 입술,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허리와 가슴을 강조한 옷들은 프랑스 최고의 섹스어필 우먼으로 불리게 된 최상의 조건들이었다.<그림31>

한국영화 여배우 문희, 남정임, 윤정희 트로이카, 염복순의 화장품광고 등을 통해서도 스타일이 일반인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32>

또한 춘향을 보면 ‘시대의 미인’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조미령(1955) - 김지미(1961) - 최은희(1961) - 홍세미(1968) - 문희(1971) - 장미희(1976)까지 춘향의 계보에 오른 여배우들은 예외없이 당대 최고의 미녀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춘향’ 영화 중 흥행에 크게 성공한 것은 서녀 편에 불과하지만 1961년 한국 영화사상 가장 떠들썩한 대결 중 하나였던 홍성기 감독 김지미 부부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 최은희 부부의 ‘성춘향’ 대결에서 ‘성춘향’이 압승한 것을 들어 대중이 서구적 외모의 김지미보다 동양적인 최은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그림33, 34>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영화관계자들은 “역대 춘향의 얼굴은 예외없이 서구적이었다”고 평한다. 서른이 넘어 춘향역을 맡은 여배우들은 두꺼운 쌍꺼풀과 높은 코, 서구적 턱선을 갖고 있었으며 메이크업도 어색할 정도로 질었다. 특히 쌍꺼풀 수술을 한 춘향역의 여배우를 따라 여성들 사이에서 두꺼운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기도 했다.¹³⁾

1963년 영화 <로맨스 그레이>에서 대학교수, 김사장의 애첩으로 등장하는 만자(최은희)의 눈썹은 진하고 각진형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올려 그려 언더라인까지 강조했다.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풍성하고 뚜렷한 눈매를 연출하고 아웃커브의 입술과 입가의 점은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자유스러운 단발머리, 양장차림과 보영(조미령)은 좀 더 어려보이는 상승형의 눈썹과 컬이 들어간 올린 머리 등은 젊은 술집여성으로 모던한 여성의 외양 속에서 상품화된 여성의 조건을 드러낸다.<그림35> 본 부인들은 현모양처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교양을 강조하며 한복차림과 올린 머리를 하고 정숙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그림36>

1964년 영화 <육체의 고백>에서의 어머니(황정순)는 서울에서는 딸들을 교육시키고 반면 부산에서는 밀수업과 매춘(양공주)을 겸하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둘째 딸인 동희(김혜정)는 풍만하고 관능적인 가슴, 까무잡잡한 피부,

13) 김민경 기자, 동아일보 매거진, <http://www.donga.com>, 1999

서구형의 세련된 얼굴을 갖추었으며 역시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그림 37, 38>

이렇게 영화에서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은 시대, 장소, 극중 인물의 성격이나 극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서구적·동양적 양상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크고 풍성하게 부풀린 머리의 고데 머리가 각광을 받았으며 가발도 등장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영화 <맨발의 청춘>이 인기를 끌어 남성들의 가죽잠바가 유행하였으며 1967년에 가수 윤복희가 국내 최초로 입은 미니스커트는 1968년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했고 롱부츠도 크게 유행했다. 미니의 출현은 단순한 변화라기보다도 전통사회의 사고에 대한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 그 해 가을부터는 테일러드 팬츠 슈트가 등장하였다.<그림39>

이상에 나타난 196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3>에 요약되어 있다.

14) 이주현,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200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31~32

<표3> 196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960년대-한국영화의 황금기
사회·문화적 요인	4.19 혁명과 청년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5.16 쿠데타와 고조된 사회분위기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경제개발 추진으로 자립경제 기반 구축 도시화에 의한 전통사회구조의 가치관 변화 대중매체의 보급, 미니스커트 출현, 한복차림 감소
영화적 요인	<로맨스 빠빠>-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을 다룬, <또순이>, <아낌없이 주련다>-멜로드라마 <맨발의 청춘>-젊은 세대들의 스타일을 추구-청춘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신파적인 경향의 멜로드라마 <오발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만추>-문예영화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정부의 국산 화장품 보호정책으로 화장품 산업 육성 메이크업 제품 개발 시작
메이크업 특징	광택있는 피부표현, 오클계 피부표현, 굵고 확실한 눈썹표현 본격적인 아이섀도우 사용-엷은 그린, 블루칼라 아이섀도우 또렷한 아이라인, 인조속눈썹, 마스카라(눈화장 강조) 오클계-엷은 베이지, 핑크펄, 브라운계 립스틱-입술선을 강조 음영을 강조한 입체메이크업 시작 서구의 브리지트 바르도, 트위기 등 스타메이크업 모방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1대 트로이카* 문화-청순하고 고상한 서구적인 이미지 남정임-지적이고 세련된 감각과 친화력 있는 이미지 윤정희-신선하고 서구적인 이미지
사진	

2.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960년대에는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과 함께 경제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때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1960년대 메이크업의 분석 자료로 삼은 영화, <맨발의 청춘>, <미워도 다시 한 번>, <겨울부인>은 당시에 대단한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로 청춘영화와 신파성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인물을 제시하면서 1960년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맨발의 청춘>은 젊은 세대들을 주인공으로 기성세대에 반발하거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을 제시하고 이 영화를 통해 젊은 관객들은 청춘스타에 열광하게 되었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비극에 바탕을 둔 한국 멜로드라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¹⁵⁾

다음에 제시한 3편의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여기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맨발의 청춘>의 작품내용은 비록 깡패이기는 하나 천성이 성실하고 정직한 남자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외교관의 딸인 요안나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어머니는 그들의 교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마침내 그들은 죽음으로써 사랑을 맺는다.

여기서 여주인공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여주인공 요안나를 중심으로 눈썹이 굵고 눈은 아이라이너와 속눈썹으로 뚜렷하게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를 살린 단발머리나 풍성하고 부풀려 올린 머리로 연출했으며 가죽모자도 등장한다. 또한 상류층의 자녀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의 의상으로 양장을 주로 입고 청순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그림40>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작품내용은 신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영신을 데리고 동해안 외딴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던 혜영은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화원을 경영하며 살아간다. 그 돈은 성공한 신호가 전해 준 돈

15)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 70년-대표작 200선」, 서울: 집문당, p.217

이었다. 그 즈음 신호는 파산지경에 이른다. 게다가 혜영에 대한 정신적 부담 까지 가중되어 재기할 용기를 찾지 못한다. 혜영은 신호를 사랑한다면 그의 곁에서 멀리 떠나 달라는 신호의 아내 부탁을 받아들여 영신을 아빠에게 보내고 자신은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와 결혼하여 일본으로 떠난다.

미혼모로 등장하는 혜영의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톤으로 눈썹이 두껍고 진하며 연한 톤의 오렌지색 립스틱을 바르고 파란색이나 보라색 아이섀도우가 보인다. 다소 통통한 모습으로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신호의 처 역시 연한 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그림41>

헤어스타일에 있어 혜영은 약간 컬이 들어간 긴 단발머리에 머리수건을 하기도 했으며 미혼모가 된 후와 신호의 처도 풍성하게 올린 머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의상의 경우 혜영은 유치원 교사로 등장할 때는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미니스커트가 주로 나타났고 미혼모가 되면서 대부분 한복을 착용하여 정숙하고 가련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신호의 처 역시 주로 한복을 입고 정숙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겨울부인(1969)>의 작품내용은 변호사(최은희)인 황여사는 전남편을 살해한 여인(김지미)의 변론을 맡기 위하여 미국에서 귀국한다. 살인범은 20여년 전 바로 황여사의 남편을 가로챘던 그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황여사의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모두 음악가로 대성시켰다. 살인죄 역시 방종한 남편이 아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죽은 것을 아들의 장래에 누가 될까 두려워 그녀가 대신 덮어 쓴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황여사의 변론으로 무죄석방이 되고 황여사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미국으로 건너간다.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교도소에 있는 그녀는 하얀 피부로 눈썹은 약간 처진 형태와 아이섀도우로 음영을 주어 슬픈 눈매를 표현했고 오렌지톤의 립스틱을 발랐다. 황여사는 오클계의 피부표현으로 눈썹은 진하고 꼬리가 날렵하고 아이섀도우로 언더라인까지 바르며 뚜렷하게 아이라이너를 강조했다. 입술 표현은 연한 오렌지톤의 색상으로 자연스런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볼터치는

귀쪽으로 걸쳐 광대뼈가 있는 곳에 기본방향으로 턱선에 음영을 주었다.

<그림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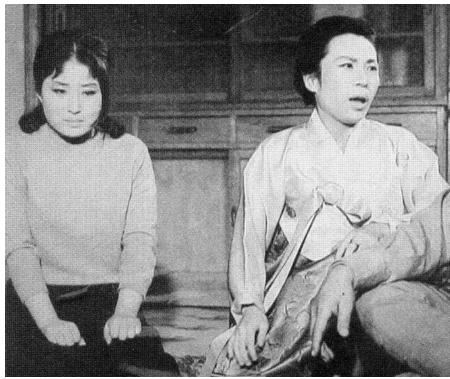
헤어스타일은 단발머리나 긴 머리 스타일이고 모자를 쓴 코트의 모습도 보인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시대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서구의 획일적인 모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중적인 메이크업 흐름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4>는 196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4> 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맨발의 청춘	미워도 다시 한 번	겨울부인
제작년도	1964	1968	1969
장르	멜로드라마(청춘영화)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
감독	김기덕	정소영	강대진
배우	엄앵란, 신성일	문희, 전계현, 신영균	최은희, 김지미,
극중인물/ 이미지	외교관의 딸/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	유치원교사, 미혼모/ 청순 가련한 이미지	변호사/교도소의 여인 세련된 이미지
메이크업 특징	눈썹이 굵게 표현 아이라인과 속눈썹 뚜렷하게 강조	깨끗한 피부톤 눈썹이 두껍고 진하게 표현 보라색, 파란색 아이섀도우 연한 톤의 오렌지색 립스틱	오클제의 피부표현 눈썹은 진하고 꼬리가 날렵함 아이섀도우로 언더라인까지 연결 아이라이너 강조 연한 오렌지톤의 입술표현 치크는 기본방향으로 턱선에 음영
헤어스타일 특징	컬이 들어간 단발머리/ 올린 머리	웨이브 긴 머리/ 올린 머리	긴 머리/단발머리
의상 특징	양장	미니스커트/한복차림	코트/니트
기타 액세서리	가죽모자, 머리수건		모자, 스카프, 브로찌



<그림23> ‘또순이’(1963)

(한국영화와 근대성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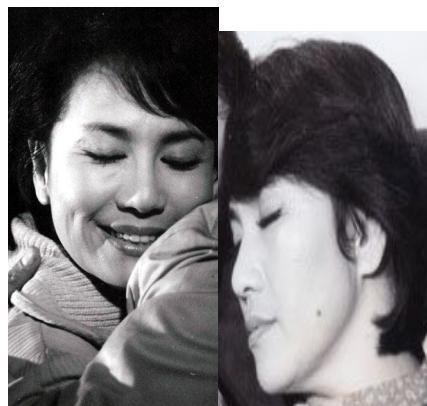
<그림24> ‘오발탄’(1961)

(한국영화사 공부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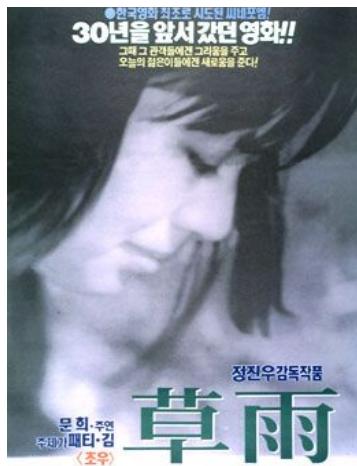
<그림25> ‘만추’(1966) 바바리 의상

(<http://www.movist.com>)



<그림26> ‘만추’ 메이크업

(<http://www.movist.com>)



<그림27> ‘초우’ (문희 데뷔작)



<그림28> 트위기
(<http://cafe.daum.net>)



<그림29> 재클린 케네디
(<http://cafe.daum.net>)



<그림30> 1960년대 메이크업
경향신문사-주간경향(1969.12.24)



<그림31> 브리지트 바르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림32> 염복순 화장품광고
(<http://www.ihkcos.co.kr>)



<그림33> ‘춘향전’(1961)
(한국영화사 공부 p.249)



<그림34> ‘성춘향’(1961)
(한국영화사 공부 p.250)



<그림35> ‘로맨스 그레이’(1963)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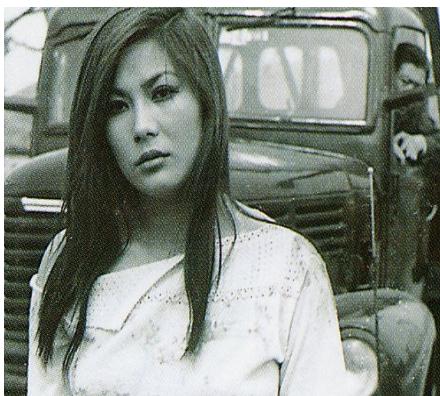
(한국영화와 근대성 p.60)



<그림36> ‘로맨스 그레이’ 본 부인

헤어스타일, 의상

(한국영화와 근대성 p.161)



<그림37> ‘육체의 고백’(1964)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한국영화 80년·上 p.46)



<그림38> ‘육체의 고백’ 헤어스타일



<그림39> 윤복희 미니스커트



<그림40> ‘맨발의 청춘’(1964)
(한국영화사 공부 p.61)



<그림41> ‘미워도 다시 한 번’(1968)

(<http://www.koreafilm.or.kr>)



<그림42> ‘겨울부인’(1969)

제 3 절 1970년대

3.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970년대에는 미국의 월남전 여파로 국내의 반전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유신으로 인한 정치적 혁명으로 사회는 경직되었으며 텔레비전 방송에서 패션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고 패션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정부의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이었다. 장발의 청소년들이 삭발을 당하고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다.

1972년 새마을 운동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소비구조의 변화와 실용주의 및 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며¹⁶⁾ 짧은 세대들이 중심을 이룬 청년문화가 대두되면서 개인의 건강과 활동,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였고 결혼과 가족양식이 변화되면서 보다 개성적인 삶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년대 짹을 틴 대중문화는 70년대에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교통과 통신의 발달, 빠른 속도로 보급된 흑백 TV 수상기와 상업 출판물의 다양화는 대중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중문화의 빠른 속도는 메이크업과 패션에도 적용되어 ‘프랑스 패션도 3일 만에 서울 명동에 들어오고 3개월이면 종로거리에, 3년 만에 전국에 퍼진다.’는 말이 생겨났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급속도의 유행은 대중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유행을 따르기는 현재와 다르게 느린 속도로 대중들에게 흡수된 것이다.

1973년 석유파동이 가중되어 위기의 국면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초반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 및 수출위주의 정책과 후반 내수시장 확장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맞

16) 박용현,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181~225

17)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

이하게 되었다.¹⁸⁾ 수출에 있어 섬유공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제품생산에 고부가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 시기에 한국영화계는 유신정권의 검열로 인해 표현의 제한은 상상력의 위축으로 예술적인 부분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TV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우수영화 육성을 위한 제도가 외화 수입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국산영화의 토대를 굳히지 못하고 70년대 영화사는 침체기를 맞이한다.

유신정권하에서 검열이 강화되어 사회적 시대의식을 구현한 작품들은 만들어질 수 없었고 소설을 영화화한 문예영화는 1971년 유현목 감독의 <분례기(방영웅 원작)>, 1972년 하길종 감독의 <화분(이효석 원작)>,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김동리 원작)>, 1974년 김수용 감독의 <토지(박경리 원작)>,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최인호 원작)>, 1975년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조선작 원작)>, 이만희 감독의 <삼포 가는 길(황석영 원작)>,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최인호 원작)>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그린 영화이며, 1977년 김기영 감독의 <이어도(이청준 원작)> 등이 대표적이다.<그림43, 44, 45, 46, 47>

또한 성을 상품화하고 삶에 대한 냉소를 표현한 호스티스물이 범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은 첫사랑에 실패한 한 여인의 불행한 방황을 그린 내용으로 호스티스로까지 전락하면서도 마음이 순수했던 여인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남성들 때문에 끝내는 알콜 중독자로 한강변에 인생을 마감한다.

주인공의 메이크업은 좀 더 다듬어져 가늘어진 눈썹과 연한 톤의 아이섀도 우와 아이라이너로 위·아래 라인까지 길고 진하게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 마스마라로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며 핑크계의 립스틱으로 표현되었다.<그림48>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와 퍼머 머리가 표현되었으며 극중 인물 캐릭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메이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자연스러운 느

18) 권혜옥 · 유송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 인문과학 연구소* 제26집, 1996, p.284

낌의 메이크업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70년대의 메이크업 유행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49>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창녀를 주인공으로 자본주의에 희생된 일군의 여성들의 삶을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청춘영화도 하이틴 물로 대체되어 <고교얄개>, <우리들의 고교시대>등 10대영화가 붐을 이루었다.<그림50>

대표적인 여배우로 1970년대 한국영화는 스타 부재현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고 외화 수입 퀼터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1회용 배우들만 명멸했을 뿐 ‘스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TV에서 활약하는 연기자들이 영화를 겸업, <별들의 고향>의 얼굴이 작고 눈이 동그란 귀여운 여인상과 인형같은 여성미를 추구한 안인숙, <영자의 전성시대>에 염복순이 인기를 모았으나 결혼과 함께 영화계를 떠나고 말았다.

70년대 중반에는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가 새로운 여배우로 ‘신 트로이카’를 형성하면서 한국영화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백치미와 청순미 그리고 섹시함까지 갖췄던 정윤희는 <나는 77번 아가씨>로 스타덤에 올랐고 도시형 미인 유지인은 <마지막 겨울>의 흥행과 함께 크게 알려졌고 장미희는 <겨울 여자(1977)>의 영화로 ‘톱’ 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이 시기 서구에서는 성적 여신으로 대표되는 파라 포셋(Farrah fawcett)은 활력과 자연스러움의 매력적인 결정체였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캐주얼 머리 모양의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시켰다.<그림51>

한편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의미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에 표현하고자 하는 평크족들이 등장하면서 평크 문화를 형성하였다.

3.2 화장품 산업 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1970년대 국내화장품 산업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과학적인 판매관리로 매출을 확대하며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적 진보가 눈부실 정도로 발전한 시기이다.

메이크업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화장품산업이 발전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했고 피부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친수성 화장품을 비롯해 인삼 사포닌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과 기초제품, 레몬제품, 선 제품, 피부타입, 연령에 따른 제품, 남성제품, 헤어토닉, 헤어 리퀴드, 그리고 베이비 제품, 샴푸, 린스 등 두발제품은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화장품 업계의 유통은 방문판매로 판촉사원인 미용사원의 활약으로 판매사원의 교육담당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과 홍보, 각 개인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소개하여 미용지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광고매체가 양적증가 추세로 소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중광고도 활발해져 업체들은 미용전문지를 발간하여 구매를 유발시켰다. 이로 인해 화장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메이크업으로 세련된 여성들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여가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문과 방송에서는 ‘바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선판한 서양인들의 매력적인 모습이 잡지에 소개되었다. 태양 아래서 즐기는 레저를 동경하게 되었는데 선판화장을 부추겨 고전인 흰 화장 대신 브론즈(또는 다크색) 메이크업이 봄을 이루기도 하였다.¹⁹⁾ 또한 입술이나 눈의 형태에 따른 메이크업과 계절이나 T.P.O(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이 달라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타났다.

화장품회사 태평양은 1971년 봄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캠페인 타이틀은 ‘오, 마이러브(Oh, my love)’로 패턴은 핑크색, 오렌지색 립스틱을 각각 바르는 칼라 조화를 추구한 메이크업이었다.<그림52>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가늘고 짧은 눈썹, 둥글고 깊은 눈매를 강조하

19)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p.468

고 오랫동안 주춤했던 볼터치 메이크업도 성행하여 여성미를 더해 주었다. 그리고 베이스 칼라, 라인섀도우, 하이라이트와 같은 미용 용어도 생겨났고 캠페인 메이크업패턴은 패션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펄이 들어간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립스틱은 붉은색에서 자주색으로 점점 어두워졌다.

1972년에는 색조메이크업이 구체화된 해로 부드러운 색조에서 보라색, 녹색, 청색을 중심으로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했고 녹색과 오렌지색의 조화가 유행색이었으며 복고풍이 나타났다.<그림53>

1973년은 계절별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얼굴형에 따른 볼 메이크업도 발표했다. 1974년에는 눈과 입술 메이크업이 보편화되어 색상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눈썹형태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주목하여 눈썹을 가늘게 다듬어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1976년부터는 서구적인 분위기에서 동양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변해갔고 침착한 색조가 주류를 이루면서 여름철에는 손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77년에는 획일적인 아름다움에서 개성을 매력으로 받아들이고 눈 밑이나 콧등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밝아 보이도록 강조하였으며 1978년은 ‘토털 코디 네이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메이크업은 토텔 패션에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메이크업패턴은 단순한 형태와 색감으로 배색하였는데 인조 속 눈썹을 붙여서 속눈썹이 길고 짙어보이게 하고 눈썹형태는 뽑거나 가늘게 그렸으며 펄의 유행과 함께 아이메이크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노즈섀도우와 볼터치 등 윤곽을 강조해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했다.

당시 서구의 평크 메이크업은 창백하고 밝은 피부톤에 눈 주위가 명든 모습으로 검정과 흰색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점이나 문양을 그려 넣거나 입술은 검은색으로 표현하여 공격적이고 퇴폐적인 면을 표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짧은 층에서 커트머리가 많이 나타났고 여전히 긴 웨이브와

생머리, 바람머리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호했다.

그리고 히피스타일과 짚시스스타일이 국내에 도입되어 잠시 유행되었으며 초반에는 짧은 총에 헛팬츠가 등장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행하였다.

미니스커트와 판타롱,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는데 블루 진(Jean)은 짧은이를 상징하는 편한 옷으로 통키타와 함께 청년문화의 외적표현 수단이었다.<그림54>

이상에 나타난 197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5>에 요약되어 있다.

<표5> 197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970년대-한국영화의 침체기
사회·문화적 요인	유신과 정치·사회적 경직 도시화, 산업화로 소비 구조 변화 TV의 전국적 보급 확대-대중문화 발전 여성 산업인력 증가 청바지와 통키타의 청년문화, 내수 의류산업 확대
영화적 요인	검열로 인한 표현의 제한 <별들의 고향(최인호 원작)>, <영자의 전성시대(조선작 원작)>, <바보들의 행진(최인호 원작)>-젊은이들의 우울한 자화상-문예영화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성을 상품화하고 호스티스물 범람 <고교알개>, <우리들의 고교시대>-청춘영화(하이틴 물)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화장품 산업의 기술적 진보 메이크업 캠페인의 영향-토털 패션과의 조화 T.P.O에 따른 메이크업 소개
메이크업 특징	핑크계 표현, 갈색 피부표현,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가늘고 짧은 눈썹 핑크계의 보라색, 오렌지색, 보색관계의 색상-다양한 색채사용 핑크립스틱-오렌지색 볼 메이크업의 중요성 강조-T존·V존 하이라이트 노즈섀도우-윤곽강조-입체감표현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2대 트로이카* 장미희-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 정윤희-세련되고 섹시한 서구적인 이미지 유지인-도시적이고 서구적인 여성상 이미지
사진	

3.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970년대 한국영화계는 유신정권의 검열로 인해 표현의 제한은 국산영화의 토대를 굳히지 못하고 영화사는 침체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화한 문예영화 및 성을 상품화하고 삶에 대한 냉소를 표현한 호스티스물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제시한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시대상과 당시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일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창녀영화의 효시로 여성들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이 시기의 일그러져가는 한국사회의 한 단층을 보는듯한 영화로 작품 내용은 군복무를 마치고 목욕탕 때밀이를 하는 창수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우연히 영자를 만난다. 3년 전 철공소 직공이었던 창수는 사장집의 가정부인 영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창수의 군복무중 영자는 사장집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쫓겨나 춤자 언니에게 봉제를 배운다. 그러나 박봉이라서 그만두고 술집 접대부도 해보고 버스 안내양도 해 본다. 불행하게도 만원버스에서 사고로 팔을 잃은 영자는 자살을 시도하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창녀가 된다. 창수는 그녀에게 의수까지 만들어 준다. 세월이 흘러 불행했던 그녀가 결혼하여 잘사는 것을 보고 영자의 전성시대를 떠올리며 행복을 빈다.

여주인공 영자의 메이크업 이미지를 살펴보면 식모에서 여공, 버스 안내양을 거쳐 호스티스로의 변화에 따라 수수하고 청순한 이미지에서 호스티스가 되면서 다소 화려하고 천박한 이미지로 변화되고 다시 수수한 이미지로 변모한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 변화하여 진한 눈썹과 보라색 아이섀도우에 눈을 강조하고 붉은 오렌지 색상의 립스틱을 바른다.<그림55, 56>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와 함께 퍼머 머리 가발이 등장하고 의상은 주로 노란색, 주황색 등 밝은 색상이 많고 스웨터와 나팔바지, 몸에 맞는 슬림한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그림57>

<겨울여자>의 작품내용은 여고 졸업반 이화는 대학에 합격한 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요셉을 만나 자기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나, 청평 별장에서 요셉이 남자로서 그녀를 포옹하려고 하자 뿌리치고 도망간다. 요셉이 이화가 자신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여 자살하자, 이화는 앞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다. 우석기는 교내 신문기자로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취재하는데, 이화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는 군입대 후 교통사고로 죽고, 실의에 빠져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 그에게 안정을 찾아주고 그녀는 저능아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봉사한다.

순수한 여성의 이화 메이크업으로 눈썹은 기본형의 눈썹으로 머리색상과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눈은 연한 오렌지톤을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고 같은 색상으로 눈 언더라인에 살짝 발랐으며 다크 그레이섀도우 또는 브라운으로 쌍꺼풀과 눈꼬리 쪽에 포인트를 주었다. 아이라인은 그레이섀도우와 혼합하여 자연스럽게 그리고 볼터치는 귀쪽에서 중심으로 광대뼈가 있는 곳에서 발라주었으며 오렌지 톤으로 뺨 중앙에 엑센트를 주어 산뜻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입술표현은 입술과 같은 색상의 립라이너로 윤곽을 그리고 붉은기가 있는 오렌지색으로 전체를 바르고 립글로스로 윤기를 내어 약간의 볼륨감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58>

젊고 수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긴 생머리와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가 등장하며 체크 목도리와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는 당시 유행하였다.

한편 여주인공인 이화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따라 청바지 차림의 캐주얼에서 블라우스와 스커트로의 변화를 통해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에서 점차 성숙한 여자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버린 여자(1978)>의 작품내용은 가난하지만 꿈 많고 자존심 많은 정애가 고모의 슬하에서 외롭게 사는데, 민철과는 사랑하는 사이다. 어느 날 정애는 야유회를 가기 위해 레코드점에서 우연히 만난 수형에게 돈을 빌리는데, 이 일로 둘은 가까워진다. 돈 많은 부잣집 딸인 것처럼 수형의 집을 방문한 정애는 수형이 지숙이란 여의사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애는 수형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수형은 정애와 결혼을 한다. 어느 날 민철이 정애의 앞에 나타나자 그들의 사랑은 깨어지는데, 새 생명을 임태한 정애가 떠나자 수형은 오해를 풀고 정애를 진실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찾는다.

여주인공인 정애의 메이크업은 눈썹은 자연스럽고 연한 오렌지톤의 아이섀도우와 입술표현으로 짧고 발랄한 이미지에서 극중 역할변화에 따라 눈에 브라운으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붉은 브라운의 입술표현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그림59>

헤어스타일은 약간 웨이브가 들어간 긴 단발형으로 등장하며 의상에 있어서도 나팔바지나 통바지의 진으로 캐주얼한 의상에서 원피스나 홈드레스의 우아한 모습으로 바뀐다.<그림60>

이와 같이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피부표현에 있어서 갈색 피부표현으로 자연스럽고 눈썹이 좀 더 가늘어졌으며 볼 메이크업이 강조되었다.

60년대에 비해 단순한 서구에 대한 모방이 아닌 점차적으로 동양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롱 레이어드 컷의 생머리나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와 가발 등의 헤어스타일과 남방과 T셔츠, 청바지로 대표되는 캐주얼한 의상 역시 대중적인 경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타난 진한 메이크업과 퍼머 머리 가발 등은 극중 캐릭터에 의해 많이 좌우된 것으로 보여 진다.

아래의 <표6>은 197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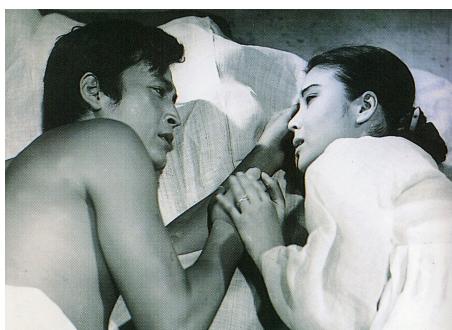
<표6>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여자	내가 버린 여자
제작년도	1975	1977	1978
장르	멜로드라마(호스티스물)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
감독	김호선	김호선	정소영
배우	염복순, 송재호	장미희, 신성일, 김추련	이영옥, 윤일봉
극중인물/ 이미지	식모, 여공, 버스안내원/ 수수한 이미지 호스티스/ 천박한 이미지	고등학생, 대학생/ 청순한 이미지	활발한 이미지/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
메이크업 특징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진한 메이크업 진한 눈썹 보라계의 아이섀도우 붉은 오렌지색 립스틱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기본형의 눈썹 오렌지톤과 그레이 아이섀도우 볼터치와 립스틱의 유사색상-오렌지톤	자연스러운 눈썹 오렌지 브라운톤의 아이섀도우 붉은 브라운의 립스틱
헤어스타일 특징	긴 머리/펴며 머리 가발	긴 생머리, 웨이브	웨이브가 들어간 긴 단발
의상 특징	나팔바지, 스웨터 슬림한 실루엣	남방, 스커트	원피스, 남방, 통바지, 나팔바지
기타 액세서리	목도리, 텔모자	긴 목걸이, 스카프	진주목걸이, 두건 스카프, 선글라스



<그림43> ‘분례기’(1971)

(한국영화 80년·上 p.142)



<그림44> ‘무녀도’ (1972)

(한국영화 80년·上 p.162)



<그림45> ‘토지’(1974)

(한국영화 80년·上 p.187)



<그림46> ‘삼포가는 길’(1975)

(<http://www.koreafilm.or.kr>)



<그림47> ‘바보들의 행진’(1975)

(한국영화사 공부 p.177)



<그림48> ‘별들의 고향’(1974)

(한국영화사 공부 p.137)



<그림49> ‘별들의 고향’(1974)

(<http://www.koreafilm.or.kr>)



<그림50> ‘고교 얄개’(1976)



<그림51> 파라 포셋



<그림52> 1970년대 메이크업 캠페인



<그림53> 1970년대 메이크업
(<http://www.ihkcos.co.kr>)



<그림54> 청바지, 장발, 통기타 문화
(<http://everyoung.ne.kr>)



<그림55> ‘영자의 전성시대’(1975)
(<http://everyoung.ne.kr>)



<그림56> ‘영자의 전성시대’
메이크업, 의상



<그림57> ‘영자의 전성시대’
헤어스타일
<http://www.koreafilm.or.kr>



<그림58> ‘겨울 여자’(1977)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림59> ‘내가 버린 여자’(1978)
메이크업
<http://www.koreafilm.or.kr>



<그림60> ‘내가 버린 여자’
헤어스타일, 의상

제 4 절 1980년대

4.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한 강압정치와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혼란과 경제의 불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산업은 매우 심각하게 침체 되었다.

그러나 수출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생활은 안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태도가 나타났고 이 시기에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다.

GNP의 성장과 함께 칼라 TV 보급, 통행금지 해제, 1983년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신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의식변화와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개성화와 개방화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국제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유행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패션 안목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는 문화접촉의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이 되면서²⁰⁾ 보편화,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대표적 여성전문지는 영 레이디 (1981. 3), 레이디 경향(1984. 5) 등이 있고 월간 멋(1984. 5)은 한국 최초의 패션 잡지라 할 수 있다.

한국영화계는 신군부 정권하에서 영화제작의 정책적 통제가 해제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칼라 TV의 보급으로 전반적인 영화계의 불황은 피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상업화 요구가 활발해지고, 동시에 민주화 요구 속에 민중의 사실적 묘사를 통한 리얼리즘 영화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유현목 감독의 <사람의 아들(1980)>은 이단적인 신학생의 사회참여의 고뇌를 모티브로 삼아 사실적인 영상미학으로 표현했고 정진우 감독의 <백구

20)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서울: 법문사, 1987), p.137

야 훨훨 날지마라(1982)>는 가난 때문에 낙도에 팔려가 매춘을 하는 한 가난한 도시처녀의 사랑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사회현실을 비판하였다. 임권택 감독 또한 <만다라(1981)>,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으랴(1984)>, <길소뜸(1985)>, <씨받이(1986)>, <티켓(1986)>등을 통해 현실의 냉철한 인식을 임권택만의 독특한 영상으로 표현했으며, <만다라>, <길소뜸>과 <씨받이>,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의 강수연은 베니스, 몬트리올 등의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월드 스타’ 칭호를 얻었으며 이를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통해 박중훈 역시 강수연과 청춘스타로 떠올랐다.<그림61, 62, 63, 64, 65>

80년대의 대표적 감독인 이장호 감독은 5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고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어둠의 자식들(1981)>, <과부춤(1983)>, <어우동(1985)>,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7)> 등을 통해 사회를 고발하면서 다양한 영상미학을 통해 이를 호소력 있게 표현하여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객동원에도 성공하였다.<그림66, 67>

또 다른 경향으로는 칼라 TV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적 요구와 개방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 대담한 에로티시즘 영화가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정권의 3S 정책(Sex, Sports, Screen)에 따른 검열완화로 활성화 되었으며, 박봉호 감독의 <자유부인(1981)>과 김성수 감독의 <색깔있는 여자(1981)>, 이두용 감독의 <욕망의 늪(1983)>,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1984)>, 이장호 감독의 <무릎과 무릎 사이(1984)>는 기혼여성의 사생활을 다룬 대표적 에로티시즘 영화라고 할 수 있다.²¹⁾<그림68> 특히 노골적인 성애묘사와 가슴이나 몸매의 노출로 시대물 포르노성 영화의 범람이 시작되면서 <애마부인(1982)>의 풍만한 가슴을 앞세워 만든 클래머 여배우 안소영은 제1대 ‘애마’로 단번에 섹스 심벌이 되었고 홍행기록을 세우며 이후 시리즈가 제작되었는데<그림69, 70> 대부분이 진한 메이크업으로 눈과 입술을 모두 강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21) 김경자, “한국 영화 포스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p.19

<뽕(1985)>, <변강쇠(1986)>에서 사극에로의 강세 경향이 두드러지고 <겨울 나그네(1986)>, <매춘(1988)> 등이 홍행기록을 세웠다.<그림71, 72, 73, 74>

하명준 감독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품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땡볕(1985)>, 신승수 감독의 <장사의 꿈(1985)>, 박철수 감독의 <어미(1985)> 등 신인감독들의 개성있는 영화 스타일을 확립하는데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살펴보면 이미숙, 이보희, 원미경 트로이카, 나영희, 김보연, 이해영 등이 있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상반된 이미지의 <뽕>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이보희의 <무릎과 무릎사이>, <여우동>은 섹시 심벌로 만들어준 영화로 생각되며 원미경은 조용히 치켜 뜯 눈에 흐르는 섹시함으로 <변강쇠>의 용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이후 TV에서는 아줌마 연기를 보여 주었다. 호소력 짙은 눈빛 또한 인상적인 나영희, <티켓>, <겨울 나그네>에서 보여준 억새풀 같은 이미지는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였고 노골적인 노출이 없어도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이해영이 있었다.

한편 서구에서는 미국의 배우 브룩 쉴즈(Brooke Shields)는 성숙한 이미지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메이크업을 보여주었고 팝 가수 마돈나(Madonna)는 화려함과 섹시함으로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여전사의 이미지를 거쳐 모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3세 때 영화 <라붐>으로 프랑스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되었던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가 청순하고 선한 이미지로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시기는 많은 스타들이 공존했고 그 만큼 다양한 메이크업이 유행되어 왔다.

4.2 화장품 산업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1980년대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다양성과 함께 자연지향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생명 공학적 기법에 의해 바이오화장품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피

부 노화방지와 영양보습을 강조한 제품들도 출시되면서 생약성분을 함유한 한방화장품이 나타났다. 또한 레몬 제품이 그런 제품으로 대치되기 시작했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에 관한 연구와 유해산소에 의한 피부손상을 방지하는 제품개발과 화이트 제품, 쿨 제품도 등장하였다.<그림75>

색조제품에도 일부 합성원료를 개발하고 아미노산 유도체를 특수공정 처리함으로써 스킨케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정발제인 헤어무스가 개발되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칼라 TV는 색깔이 있는 광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위력이 컸으며 각사가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로 투자했다.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두드러지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물량공급이 늘어나 도매상의 어려움과 가격, 유통질서 혼란, 소비자 불신의 난점 등이 방문판매를 위축시켰다. 이를 대체한 할인코너가 늘어나면서 판매방식도 시판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정부는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외국기업과 기술제휴에 의한 품질향상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합자투자도 시도되었다. 수입 자유화한 품목은 11개로 부분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이었고 외국 브랜드의 국내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1980년대에 메이크업 뷰티 아카데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길소뜸>, <씨받이>의 분장은 정준호, <어우동>, <뽕>의 분장은 홍동운, <티켓>, <겨울 나그네>의 노일실 등 분장사의 역할이 좀 더 비중이 높아졌으며 활동영역도 넓어졌다.

화장품은 색상의 성장시대, 칼라 강세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색상의 혁명기였다. 그리고 인기 텔런트인 황신혜, 전인화 등의 짙은 눈썹은 모두에게 모방되어졌고 칼라 TV이후는 메이크업이 보편화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메이크업과 때에 따라서 페리 많이 들어간 아이섀도우로 화려함이 강조되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아이라인은 자연스런 펜슬타입과 눈을 강조한 액상타입이 병존했지만 속눈썹 대신 마스카라를 사용하였다.<그림76>

1980년 초반에 짙은 눈썹, 브라운계의 아이섀도, 빨간 립스틱이 유행을 주도 했고<그림77> 중반에 눈썹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했으며 아이섀도우는 컬러 톤을 낮추고 입술에 포인트를 준 원 포인트 메이크업, 즉 내추럴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내추럴 메이크업이라 하더라도 칼라 TV 보급과 함께 색상이 다양해져 메이크업이 아주 강하고 진했는데 현재의 얼굴이 더 어려보이는 이유는 메이크업의 차이로 보여 진다.

메이크업 컬러가 다양해지면서 핑크, 오렌지, 코랄색상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린과 황금색의 조화, 오렌지 빛 입술, 카키, 골드, 벽돌색계의 지적이고 차분한 색상들이 등장했다.<그림78>

이 때 미국의 브룩 쉴즈는 강한 눈썹과 다양한 색상의 황금색, 노란색 펄이 들어간 제품을 눈두덩이에 발라 화려함이 더해졌고 볼터치도 역시 펄 제품을 사용했으며 주홍이나 붉은 계통의 입술이 표현되었다.<그림79>

또한 복고풍의 영향으로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팝 가수 마돈나의 영향으로 에로틱한 패션과 화려한 색상과 빨간 입술의 표현으로 육감적인 메이크업이 일반 여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그림80>

특히 오존층 파괴로 피부에 대한 관심사가 떠오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화장품 개발과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바탕화장이 주를 이루었고 88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동양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제시되었다. 소비자의 선택을 목표로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지적 소비자시대가 전개되었다.

자연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풍이 강세를 보이면서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누드 브라운, 폐일 핑크, 피치 등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여 또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매김하였다.<그림81>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웨이브 스타일과 단발에 웨이브를 넣어 앞머리를 세우거나 가르마를 중심으로 양 옆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

였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는 GNP 상승에 따른 소비욕구의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깨에 패드를 넣고 크고 둥글게 입체적으로 강조된 정장스타일과 캐주얼웨어가 등장하여 편안한 패션이 유행되었다.

또한 1987년 겨울에는 특수계층만 착용했던 모피나 가죽이 대중화되는 추세였고 일명 ‘디스코 바지’에서 통바지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이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이상에 나타난 198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7>에 요약되어 있다.

<표7> 198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980년대-칼라 TV 등장 이후 한국영화
사회·문화적 요인	강압정치, 광주 민주화 운동 88 서울 올림픽 개최-한국적 아름다움 표현 교복 자율화, 신세대 등장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 여성 전문지 창간
영화적 요인	민주화 요구, 겸열완화와 칼라 TV 등장 이후 상업화 요구 <어둠의 자식들>, <과부춤>-사회적 현실 인식과 비판-리얼리즘 영화 <뽕>, <어우동>, <변강쇠>, <매춘>-멜로 에로티시즘 영화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화장품 성장시대-칼라 혁명기 메이크업의 보편화, 스타일의 다양화-유행주기 단축 메이크업 뷰티 아카데미가 생기기 시작 화장품 할인코너 등장
메이크업 특징	깨끗한 피부표현 짙은 눈썹, 가는 눈썹 브라운계 아이섀도우 코랄색상(오렌지와 핑크의 중간), 황금색의 조화-오렌지빛 입술 카키, 골드. 벽돌계의 차분한 색상 자연스러움과 뚜렷한 아이라인 병존, 마스카라 붉은 입술-오렌지빛 입술, 차분한 색상의 벽돌색
대표적인 여배우 - 이미지	3대 트로이카* 원미경-경쾌하고 확실하면서 청순한 이미지 이보희-섹시하고 지적인 이미지 이미숙-성숙하고 고혹적인 이미지
사진	

4.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980년대에는 민주화의 영향으로 사회성이 짙은 영화가 많이 등장하였고 성의 노골적인 묘사가 나타나는 에로물 멜로드라마가 범람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는 높은 흥행기록을 세웠으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애마부인>은 성의 자유와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나 반면에 성의 상품화를 내포하고 있는 에로형 멜로드라마의 전형이며 <깊고 푸른 밤>은 한국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해외에 대한 허상을 보여주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매춘>은 성적 흥미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창녀들의 삶과 남자들의 무책임한 성욕과 이기주의를 그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섹스영화에서는 대체로 화려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시대상과 당시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마부인>의 작품내용은 애마(안소영)은 과실치사로 복역중인 남편 신현우를 2년째 매주 면회를 간다. 남편의 외도로 괴로웠던 애마는 주위의 권고에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면회를 다니다가 미술학도 김동엽을 만나 진실함을 느낀다. 어느 날 수비는 같은 아파트의 옛 애인 김문오를 만나 불륜의 정사를 갖는다. 하지만 변태적인 김문오의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엽을 만나 순수한 사랑을 나눈다. 현우는 이혼을 제기하는데 시골집에 있던 수비에게 동엽이 찾아와 프랑스로 갈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한 그날 현우가 특사로 출감하고 동엽에게로 가던 수비는 부부의 굴레에 묶여 현우를 마중한다.

주인공인 오수비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한 눈썹과 대체적으로 갈색이나 보라, 핑크계의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눈 꼬리쪽에 좀 더 진하게 포인트를 주었다. 아이라이너는 진하고 길게 눈 꼬리를 올려 그려 속눈썹을 붙인 다음 강조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어두운 톤의 펄이 들어간

립스틱과 붉은색으로 윤기나는 립글로스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긴 퍼머 머리이며 극중 인물에 따른 의상으로 주인공은 평범한 주부이면서 감추어진 내적 욕망이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여 어둡고 정숙한 이미지의 바바리 코트나 스커트 등 화려한 장식이 있는 홈드레스의 섹시한 이미지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82, 83>

<깊고 푸른 밤>의 작품내용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백호빈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제인과 계약결혼을 한다.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여인인 제인은 호빈에게 그녀의 삶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빛과도 같은 사랑을 느낀다. 마침내 이민국의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과하고 호빈은 미국시민의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결혼계약이 끝날 무렵, 호빈의 욕망과 제인의 사랑이 부딪혀 대립하게 된다. 결국 호빈의 비밀이 드러나며 광적인 난폭성이 폭발, 제인의 인간성을 짓밟고 만다. 두 사람은 이혼여행의 길에 오르며 사막에서 허망한 인간의 욕망과 사랑을 불태우며 죽는다.

여주인공인 제인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깨끗한 피부표현에 진하고 뚜렷한 눈썹과 아이섀도우는 오렌지와 브라운 톤의 진하고 어두운 톤의 눈 아이홀 부분과 눈 언더라인까지 눈매를 강조하였고 아이라인은 검정색으로 약간 올려 그리며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칠하여 뚜렷한 눈매를 연출하였다. 입술은 펄이 들어간 핑크나 베이지, 붉은 브라운을 바르고 볼 부위 광대뼈에 사선 방향으로 브라운 색상을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윤곽수정을 해줌으로써 입체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언밸런스 스트레이트 단발형으로 모자의 착용이 잦은 편이고 기타 액세서리로 스카프와 선글라스 등이 나타난다.

의상이미지는 미국 LA라는 이국땅에서 불행한 결혼생활 이후 여러 차례의 위장결혼을 하는 호스티스로 등장한 제인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코트를 착용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그림84>

<매춘>의 작품내용은 사랑의 실패에 이은 건달 중한의 폭행으로 자포자기하여 창녀가 된 나영은 우연히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문희와 재회한다. 상류층의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나영에 비해 가난함 때문에 창녀로 진락한 문희는 고시지망생인 영민을 돋는다. 과거 자신의 사랑을 방해한 혜리의 남편을 유인하여 그들 가정에 파문을 던진 나영은 얼마 후, 문희의 자살소식을 듣게 된다. 고시에 패스하고 나서 변심하여 고위층 딸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영민에게 나영의 주도하에 영구차가 도착하게 된다. 신부측과 하객들의 경악 속에서 영민은 문희의 시신의 앞에서 무릎을 끓는다.

여주인공 유나영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은 비교적 눈썹은 자연스러운 기본형으로 그렸고 브라운 아이섀도우로 아이홀선 부위에 바르고 진한 브라운으로 쌍꺼풀에 포인트를 주어 아이라이너로 눈 아래까지 그라데이션한다. 속눈썹을 붙인 후 마스카라로 올려주고 핑크계의 칼라로 립스틱을 바르고 광택이 있는 립글로스로 볼륨감을 준다. 볼터치는 브라운 칼라로 사선터치하고 광대뼈 부위에 립스틱과 같은 계열의 핑크칼라로 포인트를 주며 전체적으로 윤곽 수정을 하여 좀 더 입체적인 얼굴을 살려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세운 짧은 퍼머 머리와 역시 앞머리를 세운 단발머리로 나타나며 의상은 전반적으로 호스티스라는 인물의 직업과 캐릭터를 고려해 볼 때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인체선을 강조하고 노출이 많으며 장식적인 부분이 나타났고 문희의 경우는 직업은 같으나 연인에게 벼림받고 자살하는 비련의 인물로 등장하여 인체를 노출하지 않는 박스형의 자켓에 스커트의 다소 정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보인다.<그림85>

이와 같이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동양적인 눈썹과 브라운, 오렌지와 핑크의 중간색 아이섀도우 차분한 색상의 립스틱 칼라는 대중적인 메이크업 유행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헤어스타일의 앞머리를 세운 퍼머 머리와 스트레이트형 단발머리 역시 유사하게 표현되어졌다. 또한 에로형 멜로드라마가 성행했던 80년대 한국영화사적 흐름으로 보아 의상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을 부각시킨 것으로 추축된다.

아래의 <표8>는 198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8> 198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애마부인	깊고 푸른 밤	매춘
제작년도	1982	1985	1988
장르	멜로드라마(에로물)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에로물)
감독	정인엽	배창호	유진선
배우	안소영, 임동진, 하명중, 하재영	장미희, 안성기	나영희, 김문희, 마홍식
극중인물/ 이미지	주부/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	술 파는 일, 위장결혼/ 세련되고 이국적인 이미지	호스티스/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
메이크업 특징	진한 눈썹 갈색, 보라, 핑크계 아이섀도우 눈 꼬리쪽에 진하게 포인트 아이라이너 길게 눈 꼬리를 올려 그림, 속눈썹 어두운 톤의 페일 립스틱, 붉은색 립글로스	깨끗한 피부표현 뚜렷하고 진한 눈썹 오렌지와 브라운 톤 아이섀도우 뚜렷한 아이라이너 브라운, 사선방향의 볼터치, 마스카라 펄이 들어간 핑크나 베이지, 붉은 브라운 립스틱	자연스러운 눈썹 브라운 아이섀도우 아이홀 강조 또렷한 아이라이너와 속눈썹 다홍색, 핑크 립스틱 브라운, 핑크 볼터치 윤곽수정
헤어스타일 특징	긴 퍼머 머리	언밸런스 스트레이트 단발형	앞머리를 세운 짧은 퍼머 머리/ 앞머리를 세운 단발머리
의상 특징	바바리 코트, 스커트, 홈드레스	블라우스와 스커트 가디건 수트	짧은 자켓, 미니스커트, 허리선을 강조한 원피스
기타 액세서리	금사로 된 솔, 스카프	솔, 모자, 선글라스	큰 안경, 코사지, 매니큐어



<그림61> ‘길소뜸’(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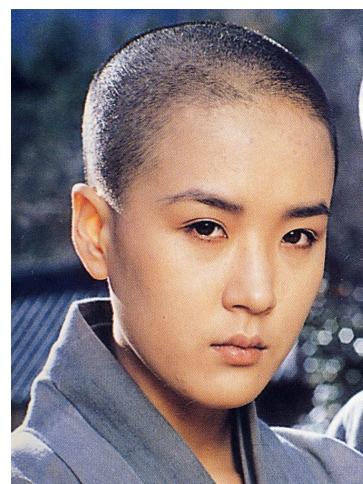
(<http://kr.image.search.yahoo.com>)

<그림62> ‘씨받이’(1986)



<그림63> ‘티켓’(1986)

(<http://www.koreafilm.or.kr>)



<그림64>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

(한국영화 80년·下 p.178)



<그림65>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1987) <그림66> ‘어둠의 자식들’(1981)

(<http://search.dau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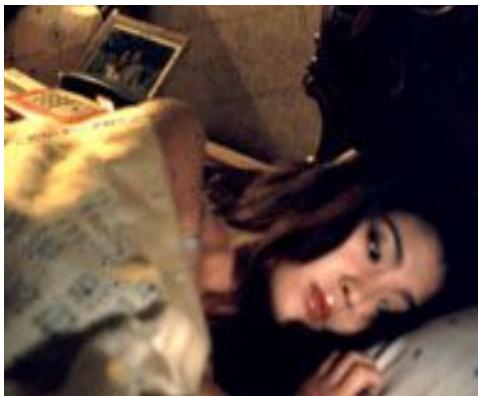
(<http://www.movist.com>)



<그림67> ‘어우동’(1985)

(<http://www.koreafilm.or.kr>)

<그림68> ‘무릎과 무릎 사이’(1984)



<그림69> ‘애마부인 3’(1985)



<그림70> ‘애마부인7’(1992)

(<http://www.koreafil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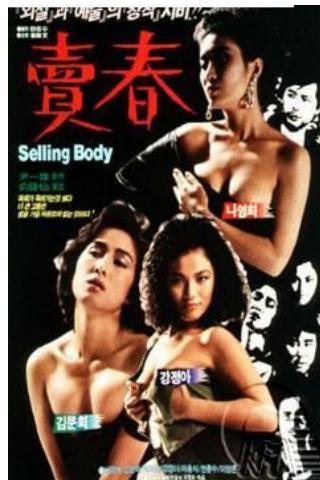
<그림71> ‘뽕’(1985)

(한국영화 80년·下 p.126)



<그림72> ‘변강쇠’(1986)

(<http://www.koreafilm.or.kr>)



<그림73> ‘매춘’(1988)



<그림74> ‘매춘 2’

(<http://www.koreafilm.or.kr>)



<그림75> 태평양화학 선불 광고(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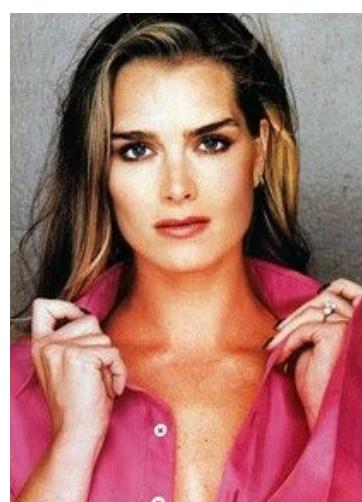
<그림76> 1980년대 메이크업
(<http://www.ihkcos.co.kr>)



<그림77> 1980년대 메이크업
(<http://www.lamy.co.kr>)



<그림78> 1980년대 메이크업
(<http://www.lamy.co.kr>)



<그림79> 브룩 쉴즈



<그림80> 마돈나



<그림81> 소피 마르소



<그림82> ‘애마부인’(1982)

(<http://www.koreafilm.or.kr>)



<그림83> ‘애마부인 2’(1983)



<그림84> ‘깊고 푸른 봄’(1985)

(<http://www.koreafilm.or.kr>)



<그림85> ‘매춘’(1988)

(<http://www.koreafilm.or.kr>)

제 5 절 1990년대

5.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1990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의 향상, 인구의 고령화, 다원주의, 자기표현 욕구의 증대, 건강이나 레저, 여가활동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소비문화가 열렸다. 또한 퍼스널 컴퓨터와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지식·정보 산업이 발달되었고 소비의 개인화가 이루어졌는데 더 나아가 소비의 확대로 더욱 성숙해지고 생활의 질을 생각하게 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면서 자연지향적인 움직임과 고급화, 전문화가 되기 시작한 미용분야와 패션상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콜로지(ecology)풍²²⁾ 경향이 지속되었다.

1997년 IMF 이후 사회적으로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구매에서의 실용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품질에 대해서 까다로워지고 있어 소비자의 높아진 가격 지향은 과소비보다 자아를 회복하려는 성숙한 소비고급화 패턴, 럭셔리한 명품으로 바뀌어갔고 소비 재구성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어 국제교류의 확대로 국제의식이 성장되고 영상매체 발달과 새로운 첨단기술 매체의 영향으로 대중상품이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영화계는 국내 대기업(삼성, 대우, SKC, 현대, 제일제당, 해태, 두산 등)들이 영화사업에 진출하였고 이후 금융권(일신창투, 미래창투, 삼부파이낸스 등)도 영화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한국영화의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IMF 경제난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철수로 이어졌고 금융자본으로 메웠다.

22) 에콜로지(ecology)풍: ‘생태학’이라는 뜻으로 과도한 문명의 발달과 자연 파괴로 오염, 고갈된 현재의 환경을 고민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욕구와 소망을 표현, 즉 자연스러운 멋을 부각

또한 비디오 시장과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대형화, 상업화되었고 대기업들은 배급과 상업성의 인식으로 극장 운영산업에 진출하였다. 이로 인해 외식·쇼핑·레저 시설이 함께 들어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 상영관(멀티 플렉스)’이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 제일제당이 개관한 CGV(CJ 골든 빌리지) 강변11이 최초의 복합 상영관이다.

또 다른 양상은 ‘제작사’의 활약으로 80년대가 감독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제작사의 시대인 것이다. 김의석 감독의 <결혼 이야기(1992)>는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기획-시나리오-연출-후반작업-홍보 등에 걸친 영화의 전 과정에서 팀워크를 보여주며 홍행을 이끌었고 영화의 제작 못지않게 기획과 홍보, 배급 등이 중요해지면서 시네마 서비스, 우노 필름, 신씨네, 명필름 등 제작사들은 잇따른 홍행작을 내며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갔다.

정부는 1998년 10월 일본 대중문화를 1차 개방하고²³⁾ 1999년 9월 2차 개방,²⁴⁾ 2000년 6월 3차 개방했다.²⁵⁾ 이로 인해 일본영화 수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됐으나 3차에 걸친 개방결과는 국내시장에 파급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1999년 일본영화의 서울 극장 점유율은 3%에 그쳤다. 오히려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여 일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일본영화 역시 외국영화의 일부일 뿐임을 확인한 셈이다.

작품경향은 대기업의 투자로 신인 감독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한국사회는 ‘신세대’, ‘X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했고 그들의 취향에 맞게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관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김의석 감독의 <결혼 이야기>는 섹스 코미디라는 과감한 문구와 성인 관객을 끌어 모음으로써 한국영화에 ‘로맨틱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향상으로 경제력이 권력의 근원이 된다는

23) 1차 개방: 세계 4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와 한일 합작영화 등으로 제한했다.

24) 2차 개방: 70여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영화로 폭을 넓혔다.

25) 3차 개방: ‘18세미만 관람불가’를 제외한 모든 영화와 극장용 만화 영화도 개방했다.

인식하에서 여성에게도 직업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차츰 부각되고 직업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남녀 고용평등법의 존재는 영화에서 여성이 당당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표상하는데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제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속에서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어 기자나 디자이너, 앵커우먼, 카페라이트, 방송직이나 유명 기업의 회사원 등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었고 영화는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 그렸으며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성들의 메이크업 역시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로 보여 지기도 하였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1994)>는 성공적으로 블랙 코미디 장르 개척과 <마누라 죽이기>, <미스터 땀마(1992)>, <투캅스 2> 등으로 홍행위주의 영화를 제작했고 이명세 감독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1)>, <첫사랑(1993)>, <남자는 괴로워(1995)> 등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냈다. 그리고 여균동 감독의 <세상 밖으로>는 사회를 풍자한 블랙 코미디이며 이 밖에도 김홍준 감독의 <장미 빛 인생(1994)>, 이민용 감독의 <개 같은 날의 오후(1995)>, 장현구, 이현승 감독 등이 1990년대 활약한 신인 감독들이다.

<그림86, 87>

또한 독립영화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성장했고 대기업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 프로모션영화, 감독중심의 저예산 영화들도 만들어졌다.

임권택 감독의 판소리 영화 <서편제(1993)>로 한국영화 최대의 관객을 동원했고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초현실주의적인 예술작품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산부인과(1997)>에서 황신혜는 커리어 우먼의 역할로 기본형의 눈썹과 브라운계열의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이너로 눈 밑 꼬리에서 앞으로 갈수록 얇고 연하게 그레이션하고 마스카라로 풍성한 눈매를 연출하였다. 입술은 아웃커크의 곡선 느낌의 여성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입술표현은 지적인 외모로

보여 진다. 또한 차갑고 완벽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얼굴만 여배우 아닌가 했던 오랫동안의 의심을 대중들에게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다.

<그림88>

<초록 물고기(1997)>에서의 심혜진은 감성적인 연기로 인상적이었고 홍상수 감독은 리얼리즘 작품으로 저예산 영화를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림89>

그리고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은 작품성과 흥행에 성공했고 장선우 감독은 <경마장 가는 길(1997)>에서 <나쁜 영화(1997)>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는 기록영화로써 최초로 극장 개봉한 작품으로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제작형태를 보인다.

1996년 부산 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중심의 영화를 선보이며 1997년 개막된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는 세계의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 진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흥행에 성장을 이어오면서 1997년에 개봉된 <접속>은 ‘사랑’이라는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 인기를 모았다. 강제규 감독은 <은행나무 침대(1996)>로 화제를 모았고 1998년 IMF를 맞아 위기에 처했으나 박기형 감독의 <여고괴담>에 출연했던 이미연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하였는데 현재 CF계에서도 모델로써도 각광받고 있으며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젊고 참신한 마인드로 성공을 거두었다.

1999년엔 강제규의 액션 멜로 <쉬리>가 한국영화 사상 최대의 관객을 동원했고 이에 출연했던 김윤진은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림90> 그 외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유령> 등 흥행에 성공했으며 한국단편영화들도 해외에서 호평을 얻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현실의 문제를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상성을 보여주려는 ‘트렌드 멜로’ 드라마가 선보였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블록버스터 남성영화가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자연히 여배우의 세대교체도 어려워졌으나 30대 여배우들은 여전히 ‘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이다.

1990년대 초·중반 대표적인 여배우는 심혜진, 최진실, 강수연 트로이카 그리고 후반에는 새로운 영화산업의 변화에 발맞추듯 등장한 심은하, 전도연, 고소영 트로이카를 형성하였다.

심혜진은 도회적 이미지, 콜라처럼 톡 쏘는 이미지로 <결혼 이야기>를 통해 자기주장이 강하고 매력적인 신세대 도시 여성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최진실은 “안 예쁜 신부도 있나,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단 두 개의 CF멘트로 스타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미스터 맘마>, <마누라 죽이기>로 솔직하고 꾸밈없는 밝은 이미지가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그림91>

심은하는 <아찌 아빠>, <본 투 킬(1996)>에서 섹시하고 발랄한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8월의 크리스마스(1998)>로 순수한 외모,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한 맑고 청순한 이미지를 선보이기 시작해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림92, 93>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도 아니고 평범한 전도연은 귀엽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속에 까탈스럽고 신경질적인 내성까지 포함된 다양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배우이며 TV에서만 볼 수 있었으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기력 때문에 스타의 자리를 구축한 <해피엔드(1999)>, <내 마음의 풍금(1999)> 등에 출연하였고 고소영은 <연풍연가(1999)>, <러브(1999)>에서 성숙한 여인의 느낌을 풍기는 멜로영화에 주로 출연하였다.<그림94, 95>

오정해는 <서편제> 이후 등장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신토불이적 가치관이 두드러지는 등 한국인에게 보편적인 쌍꺼풀이 없는 눈인 미인의 새로운 여성의 미가 완연히 한국형으로 변화되었으며<그림96> 또한 TV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활동을 한 배우로 김희선은 인형같은 외모와 완벽한 이목구비 덕분에 수많은 CF, 드라마 <토마토(SBS)>, <프로포즈(KBS)>등에 출연, 최

지우는 <첫사랑(KBS)>에서 배용준 상대역인 청순미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 시기 서구에서는 영화배우 맥 라이언(Meg Ryan)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출연하여 기존의 여배우들과 다른 깜찍하고 귀여우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인기를 모았다.

5.2 화장품 산업 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각 화장품업계에서는 메이크업 쇼 등을 통해 판매 촉진의 경쟁을 벌여 메이크업 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1991년 태평양화학에서는 ‘나의 색을 찾자’는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이런 많은 패턴들이 미용학원가에 쓰일 만큼 인기가 있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피부 노화방지를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화장품생산의 고급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고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고 그 만큼 화장품수요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산소 같은 여자’ 화장품 광고카피가 히트했으며 최근 여성의 럭셔리한 여자의 삶(카드 CF)을 대변하는 ‘이영애’의 day lifestyle이 유행되었다.<그림97>

미백효과가 있는 천연 추출물을 개발 응용하고 피부 노화방지 성분으로 세라마이드 AHA(alpha-hydroxy acid)와 같은 성분에 의한 연구, 천연소재를 주제로 한 머드 팩과 야채 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UV 화이트닝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즉, 국민 생활향상으로 화장품 소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과거 화장품이 사치품의 이미지에서 생활 필수용품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특히 트웨이 케익의 시장확대와 색조제품의 색상에 대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데 힘을 기울인 시기이다.

한편 1997년은 IMF 위기를 맞아 소비풍조가 줄어들고 절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존 브랜드를 리뉴얼(renewal)하여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을 선보였으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각 회사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해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패키지나 용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색조제품 뿐만 아니라 기초제품의 리필제품도 늘려나갔다.

화장품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 방문판매에서 일반판매(화장품 전문점-할인코너)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화장품 전문점은 소비자 또한 공급자에게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짧아 운영자금 부담이 적고 판매원의 교육비, 관리비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었으나 도매상과 대리점에 대한 판촉비 및 판매수수료 등 전문점 과다한 할인 경쟁, 덤핑판매 등 고객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1997년 5월부터는 ‘화장품의 최종 판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회사 전체가 고객만족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문화센터, 전문대학과정에 개설되어 학문으로써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좀 더 전문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전문직종이 등장하였고 이는 개인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걸 맞는 직업으로 떠올랐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개성화시대로 미래지향, 정보화, 세분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혼란과 환경에 대한 염려로 자연지향적이고 또한 에콜로지, 내추럴, 라이트, 소프트 등의 단어가 등장했으며 패션, 인테리어, 장신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고 심플하면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서구에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등장한 맥 라이언은 오렌지 브라운톤의 아이섀도우, 핑크계의 립스틱, 귀여운 볼터치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자유분방하고 불규칙한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럽고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그림98>

우리나라 메이크업 역시 여성들의 자유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색상이 선호되어 여성미가 강조되었다.

초반에는 에콜로지풍으로 브라운 계열이 유행하였고 복고풍을 재현한 패턴이 새로운 신복고풍의 등장으로 눈썹을 가늘게 그리거나 입술은 와인과 브라운 계열을 바르는 것이 유행이었다.<그림99>

또한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 아이 홀(eye hole) 등 눈을 강조하는 패턴이 나왔고 1994년은 동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스닉(ethnic)풍과 내추럴 칼라가 부각되면서 봄에는 난색계의 옐로우, 레드계열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 이미지와 색들도 유행하였고 가을에는 이지적인 느낌의 립스틱이 인기가 있었다.

1995년은 투명감이 있고 깨끗한 피부를 살린 다양한 스킨톤의 칼라와 현대 여성에게 자연스러우면서 생명력을 표현한 그린이 부각되었고 베이지, 오렌지, 핑크, 로즈 등 밝고 맑은 칼라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후 민속풍 이미지로 검은 눈썹에 붉은색의 립스틱이 재등장하기도 하였고 한편 1990년대 말에는 금속적인 광택과 우주광간의 어두운 색채들이 병행되면서 펄과 반짝이를 이용한 사이버 메이크업, 블랙 메이크업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 퍼머가 유행했으며 1960년대 복고풍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재해석하여 1990년대에 잘 어울리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형시켜 내추럴한 스타일이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모발염색에 대한 색상의 종류도 다양해져 염색법 개발과 함께 가발, 부분 피스 등이 호황을 누렸다.

기존패션의 미의식을 거부하는 히피룩(hippie look),²⁶⁾ 그런지룩(grunge look)²⁷⁾과 란제리 패션 등이 등장했다. 파리나 도쿄 등 해외 컬렉션에 진출하는 한국 디자이너들도 늘어났고 ‘세계화’ 추세의 영향으로 세계패션의 최신유행 정보를 그 중심지와 동시에 보고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감각을 지닌 신세대의 출현으로 티셔츠와 초미니스커트, 핫팬츠, 청재킷 등 화려한 프린트의

26) 히피룩(hippie look):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패션

27) 그런지룩(grunge look): 쓰레기, 폐물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히피의 동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패션경향

원피스, 군화스타일의 구두, 또한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의 강조로 시폰(chiffon) 소재의 사용이 증가되었고 데님(denim) 소재의 의복과 광택있는 소재도 많이 나타났다.

이상에 나타난 199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9>에 요약되어 있다.

<표9> 199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1990년대-한국영화의 산업화
사회·문화적 요인	지식·정보 산업 발달, 레저·여가활동 등 소비문화 변화 영상매체의 발달, 대중상품 일반화 여성의 전문직 진출, 신세대 문화 출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자연지향적
영화적 요인	영화의 산업화 현상, 복합 상영관 등장-대형화, 상업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 상승, 국제영화제 진출, 한국영화의 장르 다양화 <결혼 이야기>-로맨틱 섹스 코미디, <투캅스>-블랙 코미디 독립영화 <서편제>-판소리 영화, <낮은 목소리>-기록영화 <산부인과>, <초록 물고기>-리얼리즘 영화 <겁속>, <8월의 크리스마스>-멜로영화, <쉬리>-액션 멜로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화장품 생산 고급화, 전문화- 리뉴얼 제품 증가 화장품 회사-고객만족-무한 경쟁 체제 메이크업 학문으로써의 영역 확대, 전문화-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장
메이크업 특징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표현 짙고 굵은 눈썹으로 끝은 얇게 표현 퍼플계 에콜로지풍, 오리엔탈이미지 계열색상 아이섀도우, 미래주의 등 광택의 아이섀도우 유행 아이라인은 부분적으로 아이홀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크게 강조 마스카라로 눈매표현-칼라 마스카라, 브라운 립스틱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1990년대 초·중반 충무로 4대 트로이카* 심혜진-시원하고 도회적인 이미지 강수연-당당함, 자유분방하고 섹시한 이미지 최진실-솔직하고 애교가 있는 깜찍한 이미지
사진	

	1990년대-한국영화의 산업화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p>1990년대 후반 4대 트로이카*</p> <p>전도연-평범하며 귀엽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p> <p>심은하-편안함, 맑고 청순한 이미지</p> <p>고소영-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p>
사진	

5.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영화계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생기면서 <결혼 이야기>, <미스터 맘마> 등의 영화들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후반에는 <접속>, <편지>와 같은 멜로드라마가 높은 순위의 관객동원률을 기록하는 등 멜로드라마의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쉬리>의 대중적인 영향력 또한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영화 장르의 다양화 현상도 나타났다.

<결혼 이야기>는 자유스러운 젊은 신세대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 90년대식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과 신혼부부의 성풍속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이 시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종에 대한 유행의 흐름에 따라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을 캐릭터화하여 당시의 유행을 영화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시대상과 당시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일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 이야기>의 작품내용은 김태규와 최지혜는 결혼했다. 남자는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듀서, 여자는 단역성우이다. 일과 사랑 때문에 빨래는 산더미같이 쌓인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정열 때문에 바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김태규와 최지혜의 결혼은 무척이나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 아침에 헤어드라이기 소리에 단잠에서 허무하게 깨어나 바쁜 아침을 시작하고 연애시절에는 밤새워 얘기해도 재미가 넘쳤던 그들의 대화는 이제 1분을 넘기지 못하여 궤도없이 떠도는 별처럼 맥이 끊겨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혼은 그들이 미혼시절에 가졌던 성에 관한 환상에서 하나 둘 깨어나게 만든다.

여주인공인 최지혜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깨끗한 피부표현과 눈썹은 두껍고 진하며 약간 길어 보여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브라운, 오렌지 톤의 아이섀도우로 자연스럽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했고 아이섀도우와 그레이션한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로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연출하였다. 립스틱

과 유사한 색상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붉은 톤이나 브라운, 오렌지톤으로 자연스럽고 커리어 우먼의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불тер치는 입술색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그림100>

헤어스타일은 짧은 웨이브 단발형과 언밸런스 컷트형에 앞머리를 세운 스타일이 8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나타나며 기타 액세서리로는 큰 귀걸이, 스카프 등이 보인다.

극중 인물에 따른 의상은 방송국 성우라는 직업을 가진 커리어 우먼으로 수트가 주류이나 색상이나 스타일에 있어 유행에 민감한 편이며 짧고 활동적인 직장여성의 이미지와 함께 캐주얼 차림으로 짧은 신혼부부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접속>의 작품내용은 라디오 음악프로 담당 PD인 동현은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하는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 한편 CATV 홈쇼핑 채널 쇼핑가이드인 수현은 룸메이트인 회진의 애인 기철을 짹사랑하고 있다. 두 사람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매개로 익명의 공간 사이버페이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채널 쇼핑가이드인 수현의 메이크업을 보면 피부색과 유사한 피부표현과 기본형의 눈썹, 브라운계열의 아이섀도우로 눈두덩이에 바르고 진한 브라운으로 눈 꼬리에 포인트를 주어 뚜렷하게 눈매를 강조하고 속눈썹과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또한 속눈썹 사이사이에 그려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하였다. 립스틱은 레드 브라운이나 오렌지톤을 빌라 입술의 깔끔함을 보여주었고 불터치는 인위적이지 않은 브라운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그림101>

헤어스타일은 짧은 웨이브 단발로 80년대에 유행이 90년대까지도 유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상은 스커트, 티, 남방 등 편안한 차림의 캐주얼로 밝고쾌활하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처녀들의 저녁식사>의 작품내용은 29살 동갑내기인 호정, 연, 순은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친구사이이다. 디자인회

사 사장인 호정은 처음 본 남자들과 거리낌 없이 섹스를 즐기는 정열적인 커리어우먼. 호정과 같은 집에 사는 호텔로비라운지 웨이트리스 연은 남자 친구 영작과 틈틈이 잠자리를 같이 하긴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순은 남자 경험이 전무한 대학원생.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당돌한 꿈을 갖고 있다. 섹스에 대해 자유롭던 이들은 유부남과 몇 번의 잠자리의 댓가로 간통죄에 걸리는 불행을 맞는 호정,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을 보낸 후 실직의 좌절과 만난 연이, 연이의 남자 친구 영작으로부터 첫 경험을 하고 그 결과 임태한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순이. 이렇게 세 여자들은 자신들이 놓담처럼 말하던 섹스의 몇에 걸려 인생의 길을 바꾼다.

호정(강수연)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깔끔한 이미지의 눈썹, 브라운계열의 아이섀도우에 진한 브라운칼라로 포인트를 주어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 풍성하게 표현하고 브라운계의 립스틱과 볼터치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그림102>

짧은 쇼트 헤어스타일은 커리어 우먼의 호정을 캐릭터화시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의상 역시 직업을 반영한 정장차림이 주를 이루고 외면상 반듯한 여성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정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연(진희경)이 또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하고 메이크업은 호정과 유사한 느낌을 가지며 헤어스타일은 자연스레 내려오는 긴 생머리와 편안한 옷차림으로 솔직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그림103>

순(김여진)이는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처녀역으로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에 다행이진 그대로의 눈썹, 본래 입술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한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다.<그림104>

헤어스타일은 앞머리가 있는 긴 스트레이트 머리에 청순하고 순진한 이미지의 대학생으로 캐주얼한 차림이 주를 이룬다.

한편, 솔직하고 꾸밈없는 대화를 위해 세 명의 여성의 속옷 차림으로 등장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는 <결혼 이야기>, <접속>,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로 부각되어 진다.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톤의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앞머리를 세운 퍼머 머리가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는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나 스트레이트형 긴 머리가 등장하며 의상에 있어서도 보다 절제되고 심플해진 모습을 보인다.

아래의 <표10>는 199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10> 199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결혼이야기	접속	처녀들의 저녁식사
제작년도	1992	1997	1998
장르	멜로(로맨틱 코미디)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
감독	김의석	장윤현	임상수
배우	심혜진, 최민수	전도연, 한석규	강수연, 진희경, 김여진 디자인회사사장/
극중인물/ 이미지	단역성우/ 활동적인 이미지	쇼핑가이드/ 밝고 청순한 이미지	정열적인 커리어 우먼 웨이트리스/ 솔직한 여성의 이미지 대학원생/순진한 이미지
메이크업/ 헤어 담당	김선진/김은희	송종희, 최현정, 김수연	김진숙, 김민선/이경자
메이크업 특징	깨끗한 피부표현 진하고 굵은 각진 눈썹 브라운, 오렌지톤의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마스카라, 속눈썹 브라운, 오렌지색 립스틱, 볼터치는 자연스럽게 표현	맑고 밝은 피부표현 기본형의 눈썹 브라운계의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마스카라, 속눈썹 레드, 브라운계 립스틱 브라운 볼터치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기본형의 눈썹에 곡선 브라운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브라운계의 립스틱/ 화장기 없는 얼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특징	웨이브 단발 앞머리를 세운 스타일	웨이브 단발	숏컷 머리/긴 머리/ 긴 생머리
의상 특징	수트, 정장 주류/ 편안한 캐주얼 차림	편안한 캐주얼 차림	정장/캐주얼
기타 액세서리	큰 귀걸이, 스카프		



<그림86> ‘장미 빛 인생’(1994)

(한국영화 80년·下 p.248)



<그림87> ‘개 같은 날의 오후’(1995)

(<http://kr.movie.yahoo.com>)



<그림88> ‘산부인과’(1997)

(<http://kr.search.yahoo.com>)



<그림89> ‘초록 물고기’(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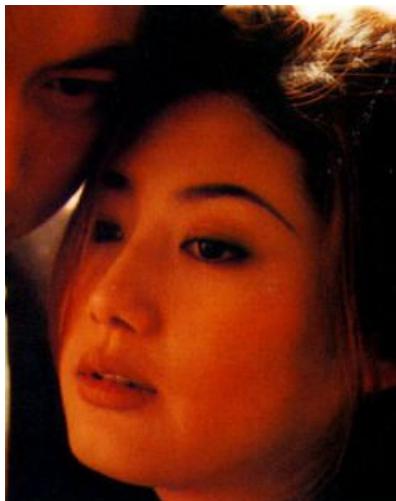
(<http://www.cineoseoul.com>)



<그림90> ‘쉬리’(1999)
(<http://kr.movies.yahoo.com>)



<그림91> ‘미스터 맘마’(1992)
(<http://kr.movies.yahoo.com>)



<그림92> ‘본 투 칼’(1996)
(<http://kr.search.yahoo.com>)



<그림93> ‘8월의 크리스마스’(1998)
(<http://www.sidus.net>)



<그림94> ‘해피엔드’(1999)

(<http://movie.daum.net>)



<그림95> ‘연풍연가’(1999)

(<http://kr.search.yahoo.com>)



<그림96> ‘서편제’(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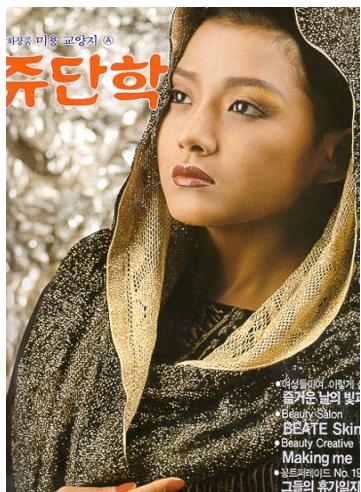
(한국영화 80년·下 p.234)



<그림97> 화장품 광고
(<http://kr.search.yahoo.com>)



<그림98> 맥 라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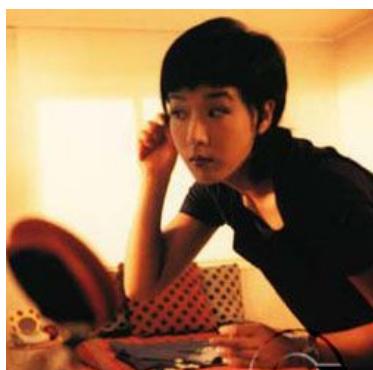
<그림99> 1990년대 메이크업
(<http://www.ihkcos.co.kr>)



<그림100> ‘결혼 이야기’(1992)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http://kr.search.yahoo.com>)



<그림101> ‘접속’(1997)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림102>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그림103> ‘처녀들의 저녁식사’ <그림104> ‘처녀들의 저녁식사’

(<http://kr.search.yahoo.com>)

제 6 절 2000년대

6.1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사적 흐름

2000년대는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고, 디지털시대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M(Mobile)세대, 인터넷 혁명은 서비스 거래의 온라인화를 통해 영화·비디오·게임·음악 등 모든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중문화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으며 문명에 대한 기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되고 과거를 되새기는 TV프로그램이나 영화가 대거 리메이크(Remake)되었다.

한국영화계는 TV가 등장한 후 영화는 퇴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영화의 존재가치는 확대될 것이며 디지털 영화제작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영화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중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복합 상영관이 확산되며 또한 케이블TV, 위성방송, 비디오, DVD 등장으로 컴퓨터나 TV 수상기를 통해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고 개인공간에서 감상하고 저장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영화사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지고 전문성이 갖춰지고 있는 점은 성장을 입증하며 2000년에도 대형화 추세가 지속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은 최다 관객을 모았고 <그림105> 순수하고 청순한 순임역을 소화해내며 영화계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소리의 <박하사탕>과 <해피엔드>, <친구> 등이 그 여세를 이어나갔다. <그림106> 국제수상 소식도 잇따라 베니스영화제에서는 <오아시스>와 칸영화제에서는 <취화선>이 각각 영광을 거머쥐었다.

<오아시스>에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 한공주역인 문소리, <취화선>에서 고전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손예진, 단아한 유호정, 김여진이 기생 역할로 출연하였다. <그림107, 108>

이러한 한국영화는 발전을 거듭하며 평균관객수가 외화를 앞질렀고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며 아무튼 한국영화는 새천년을 향해 경쾌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편에서는 조폭영화, 상업영화의 범람을 우려하지만 선택은 관객의 뜻이며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영화를 사랑하고 보는 관객들이 있는 이상 한국영화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조폭 마누라>의 신은경은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졌는데 보이쉬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유행되어졌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역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수많은 스타들이 출연한 시기이다. 최근 이로 인해 강혜정, 임수정, 문근영은 ‘충무로 신 트로이카’로 주목받는 배우들이다.

<올드 보이>에 출연했던 강혜정은 조숙한 이미지와 함께 소녀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 배우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임수정은 <피아노를 치는 대통령>에서 차분한 인상과 마른 몸을 지닌 동안의 소녀정도로 인식하였는데 <장화 홍련>에서는 광기가 서려 있는 신경질적인 연기로 장인함과 청순함을 겸비한 배우이다.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을 더해 ‘국민 여동생’이라는 깜찍한 애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근영은 <어린신부>, <댄서의 순정> 출연작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최고의 홍행배우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몽정기>, <위대한 유산>은 조금 어눌해 보이지만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소녀같은 이미지와 섹스어필과 결합되어 보여진 김선아는 ‘코미디의 여왕’으로 스타의 자리에 올랐고 <그림109> 염정아는 <범죄의 재구성>에서 짙은 메이크업으로 매혹적 팜므 파탈을 연기해 호평을 받았다.

가수활동에 주력하던 엄정화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섹시한 카리스마를 내세워 ‘배반의 장미’, ‘포이즌’ 등 히트곡을 내놓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출연하면서부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싱글즈>에서는 자기주장이 강한 커리어 우먼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심리를 표현했는데, <…홍반장>에선 귀여운 완벽주의자 치과의사 캐릭터로 출연했다.

이렇듯 현재의 여배우들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연출

하여 남이 가지지 않는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추구하여 유행에 있어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스타들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스타의 유행을 만드는 데는 영화에 맞는 캐릭터와 이에 맞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연출할 수 있는 토털 뷰티 아티스트가 필요하며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2 화장품 산업 발달과 메이크업 경향

유행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의 흥수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최신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최대의 이슈인 웨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화장품 생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정부의 지원이 가시화된다.

21세기 첨단 정밀 화학산업과 감성산업으로 불리는 화장품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인 고부가가치 창출로 위상을 높여가고 2000년 7월 화장품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뒷받침 또한 강화되어 가고 소비자 중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장품개발은 미백제품, 주름완화, 자외선차단제품으로 기능성화장품 특허가 증가하였고 색조화장품 역시 점유율이 높아졌다.

특히 천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상 고부가가치의 신원료나 신소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과 전통적인 제조비법으로 만든 한방 화장품이나 식물성 화장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여 매출을 신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업계는 선두기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 제고와 유명 브랜드의 개발 추진, 품질의 고급화로 고객감동 극대화를 실현하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메이크업 문화는 1990년 말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스타일이 심화되어 2000년대에 들어 더욱 다양한 트렌드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부분들은 외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 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스타일들이 유행 언어로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매년 사계절 유행 메이크업 패턴을 제시하며 색상이나 형태보다는 빛이나 질감에 중점을 두어 여성의 얼굴을 맑고 투명하게 완성시켜주는 메이크업과 <그림110> 스프링 워터 칼라 등 유행개 하였다. 펄이 들어간 파우더, 사이버 느낌의 광택 아이섀도우 등을 비롯해 신소재의 기능적인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고 글로시하고 투명한 립스틱, 립글로스 등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갔고 다양한 색상의 마스카라, 다양한 모양의 속눈썹도 인기를 모았다. <그림111> 또한 복고풍과 복합적인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그림112>

헤어스타일은 ‘나에게 어울리는 나만의 개성’의 시대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 색상들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고 다양한 창의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어진다.

한편,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의 자연스럽고 투명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짧은 단발머리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으며 이로 인해 청순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생활 소비가 레저화 됨에 따라 스포츠 트렌드는 월드컵과 함께 편안하고 실용적이면서 개성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층의 취향을 잘 만족 시켜주고 있다.

이상에 나타난 2000년대 영화사적 흐름,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와 이미지는 아래의 <표11>에 요약되어 있다.

<표11> 2000년대 영화와 메이크업, 대표적인 여배우

2000년대-다양화	
사회·문화적 요인	한일 월드컵 계기-코리아 열풍 디지털시대-온라인화 대중문화 공간 확산-개인 공간 확대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 유행의 급속한 변화, 다양한 트렌드 공존
영화적 요인	<공동경비구역 JSA>, <박하사탕>, <해피엔드>, <친구>, <오아시스>, <취화선>, <실미도>, <태극기를 휘날리며>, <내사랑 싸가지>, <내 남자의 로맨스>, <엽기적인 그녀> 코믹, 멜로, 사극, 조폭, 공포영화-퓨전 영화-다양화-대형화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고기능성 화장품 생산 증가-품질 고급화-화장품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 화장품 이미지 제고-고객감동 극대화 매년 사계절 유행 메이크업 패턴 제시 토털 뷰티 아티스트 등장-전문화, 세분화
메이크업 특징	투명 메이크업 력서리한 피부 질감표현 스모키 아이, 비비드한 칼라섀도우 자연스러운 눈썹 글로시한 입술표현
대표적인 여배우 이미지	충무로 5대 신 트로이카* 강혜정-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개성있는 이미지 임수정-여성스럽고 순수한 이미지 문근영-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이미지
사진	

6.3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속한 정보진달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문화의 발달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영화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등 자료를 토대로 시대상과 당시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일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폭 마누라>의 작품내용은 조폭계의 살아있는 전설, 차은진(신은경 분). 가위하나로 절대 남성지대인 암흑가를 평정한 그녀지만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헤어졌던 언니(이웅경 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언니를 다시 만나지만 그녀는 이미 위암 말기 환자다. 이에 은진은,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감행하는데... 동사무소 말단 직원으로 무려 58회의 맞선을 보고도 번번히 에프터 신청을 받지 못하는 남자 강수일(박상면 분). 어느 날 은진의 부하들과 우연히 마주친 그는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보스의 남편감으로 발탁(?)된다. 신부가 조폭인지도 모르고 마냥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수일. 그러나 그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집 안 살림은 고사하고 잠자리마저 거부하며 결핏하면 발차기로 대응하는 새신부였으니... 은진은 그녀대로 조직 기반을 위해 벌이고 있는 부동산 사업 등으로 온전한 마누라 역할이 불가능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언니마저 조카를 갖고 싶다는 폭탄같은 부탁을 한다.

그녀의 폭력적인 말투와 행동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수일이 결국 은진과 헤어질 결심을 하던 날 밤, 은진은 평소 자신들의 사업에 눈독을 들이던 백상어파와 대대적인 싸움을 벌인다.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공격에 은진이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자 순진하기만 하던 수일의 꼭지는 180도로 돌고 마는데...

여주인공(신은경)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보이쉬한 이미지로 있는 그대로의 피부를 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느낌의 눈썹으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브라운 아이섀도우로 음영만을 주

고 아이라이너는 자연스러운 펜슬 또는 케익 타입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였다. 불터치 역시 연하게 하고 입술은 혈색만을 주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쇼트머리의 헤어스타일과 대부분 정장차림의 의상을 입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그림113>

또한 세리역으로 나오는 최은주는 보스 신은경에게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윤락여성으로 천박한 이미지를 가지는데 메이크업은 진한 파란색 아이섀도우와 인조속눈썹을 강조하고 빨간 입술로 섹시함을 연출하였다.

웨이브 퍼머 머리의 헤어스타일과 노출이 심한 의상들로 표현되어 진다.

<가문의 영광>의 작품내용은 전 벤처사업가 CEO 박대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옆엔 벌거벗은 채 진경이란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필 호남 주먹세계의 살아있는 신화 3J의 딸이냔 말이에요? 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공갈협박 브라더스라고 나타난 진경의 오빠들은 나에게 결혼하라고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 뿐인 줄 아세요?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 와서는 그 무시무시한 3J회장을 만나야 된다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호남 주목계의 신화 ‘쓰리제이 家’의 막강 삼형제입니다. 돈과 권력... 뭐하나 아쉬울 것 없는 가문이지만 사실 딱 한 가지 치명적 콤플렉스는 ‘학력’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문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총각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놈을 우리 가족으로 엮기만 하면 되는데... 박대서!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장진경이라는 주인공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순수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반면에 엉뚱한 면이 있는 김정은 뾰얀 피부표현과 상승형의 눈썹으로 표현하고 오렌지나 브라운색상의 아이섀도우로 발랄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럽게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연출하고 핑크나 오렌지색상의 립글로즈로 입술을 마무리한다.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니트에 스커트를 입고 주로 등장한다.<그림114>

<친절한 금자씨>의 작품내용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인 ‘금자’(이영애)는 스무 살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된다. 어린 나이,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검거되는 순간에도 언론에 유명세를 치른다. 13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보내는 금자. ‘친절한 금자씨’라는 말도 교도소에서마저 유명세를 떨치던 그녀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을 한 명, 한 명, 열심히 도와주며 13년간의 복역생활을 무사히 마친다. 출소하는 순간, 금자는 그 동안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펼쳐 보인다. 그녀가 복수하려는 인물은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 백선생(최민식). 교도소 생활 동안 그녀가 친절을 베풀며 도왔던 동료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금자의 복수를 돋는다. 이금자와 백선생. 과연 13년 전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복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주인공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피부는 가볍고 밝은 피부표현으로 창백한 인상을 주며 화이트와 레드 아이섀도우로 아이홀 부분에 발라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마스카라로 풍성한 볼륨을 주어 포인트를 주었으며 입술은 립글로즈와 누드 핑크색상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볼터치는 핑크 색상으로 살짝만 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창백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로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의상은 주로 원피스, 캐주얼 등 다양한 연출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고 개성화되어가고 점차적으로 피부톤에 중점을 둔 자연스러운 특명 메이크업에 패턴들이 타나나고 있다.

아래의 <표12>는 2000년대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12>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친절한 금자씨
제작년도	2001	2002	2005
장르	코미디, 액션	멜로드라마(코미디)	스릴러, 드라마
감독	조진규	정홍순	박찬욱
배우	신은경, 최은주, 박상면	김정은, 정준호	이영애, 최민식
극중인물/ 이미지	조폭/ 중성적인 이미지 윤락여성/ 섹시한 이미지	연구원/청순한 이미지	출소이후/차가운 이미지
메이크업/ 헤어담당	유지효	김건식	송종희
메이크업 특징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직선을 살린 눈썹 아이라이너 -자연스러운 펜슬, 케익 타입 볼터치, 입술 혈색 부여 브라운/파란색 아이섀도우 인조속눈썹 강조 레드입술	뽀얀 피부표현 상승형의 눈썹 오렌지, 브라운색상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핑크, 오렌지 립글로즈	창백한 피부표현 자연스러운 눈썹 레드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베이지, 핑크 립스틱 볼터치 연핑크
헤어스타일 특징	쇼트머리/퍼 머 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
의상 특징	정장차림/짧은 치마	니트, 스커트	원피스



<그림105> ‘공동경비구역 JSA’(2000)

(<http://www.cineoseoul.com>)



<그림106> ‘박하사탕’(2000)

(<http://user.chollian.net>)



<그림107> ‘오아시스’(2002)

(<http://www.cineoseoul.com>)



<그림108> ‘취화선’(2002)

(<http://user.chollian.net>)



<그림109> ‘몽정기’(2002)
(<http://www.cineseoul.com>)



<그림111> 펠·글로시 메이크업

<그림112> 복고풍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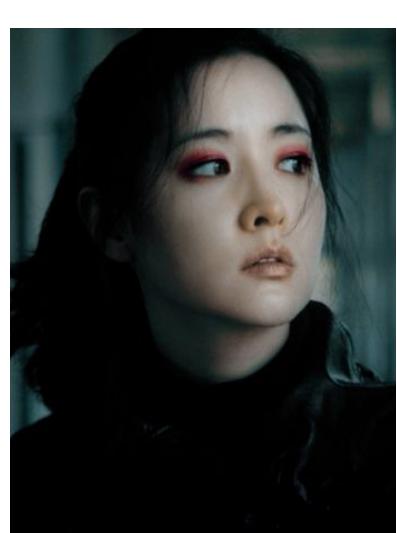
<그림113> ‘조폭 마누라’(2001)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http://www.cineoseoul.com>)

<그림114> ‘가문의 영광’(2002)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그림115> ‘친절한 금자씨’(2005)

(<http://www.cineoseoul.com>)

제 4 장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에 따른 이미지 표현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그 당시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써 1950~1960년대에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모방되어 졌다. 이로 인해 메이크업이 보편화되고 대형 스크린에 의해 얼굴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면서 점차적으로 현재에는 자연스러운 투명 메이크업이 유행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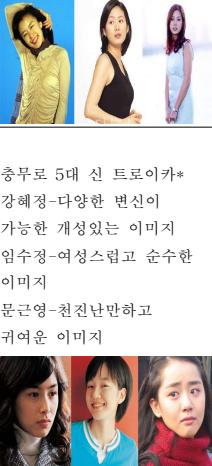
이러한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분석을 통해 영감을 얻어 1950년대 이후 다양한 이미지의 영화 메이크업을 재현하고 패턴을 제시하였다.

첫째, 1950~1960년대의 메이크업은 서로 유사점이 많아 1점으로 표현하였고 둘째, 1970년대 셋째, 1980년대 넷째, 1990년대 다섯째, 2000년대로 총 5점으로 분류하였다. 이미지 연출에 의한 시대별 영화 메이크업의 특징을 선택하고 모델들에게 시술하여 사진으로 제작하였다.

작품제시의 색상들은 크리오란(Kryolan)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표13>과 같은 분석에 의해 메이크업을 재현하였다.

<표13> 1950년대 이후 한국영화로 보는 시대별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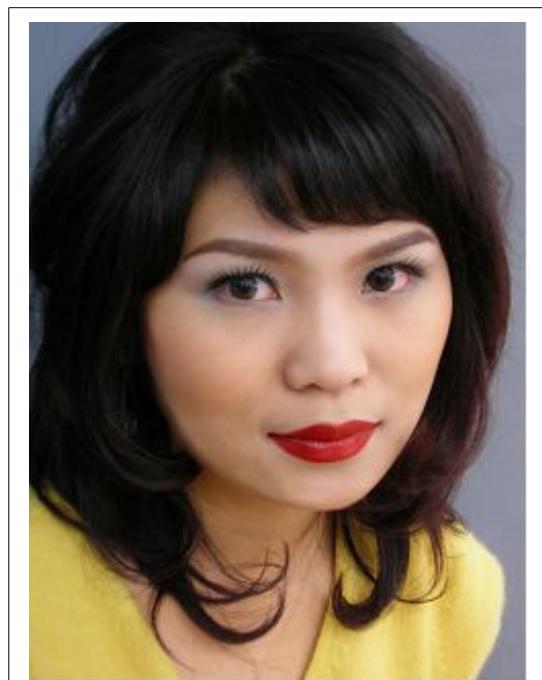
	사회·문화적 요인	영화적 요인	화장품 산업발달 요인	메이크업 특징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징	대표적인 여배우-이미지
1950년대	미국문화의 영향 직업여성 증가 저급문화 모방 영화보급 TV보급 나일론(Nylon) 등장	영화제작 출발점 총천연색 영화 상영 자유주의 풍조 멜로드라마의 유행 영화스타의 모방	수입화장품 범람 국산화장품 시장 교란 화장품 '코티'사 기술제휴 ABC 비듬약, 크림 포마드 생산	밝은 피부표현 두껍고 진한 눈썹 길고 뚜렷한 아이라인 인조속눈썹 인위적인 메이크업 입술은 비비드톤 붉은 색-핑크계	흰 피부표현 굵고 진한 눈썹 인조속눈썹 뚜렷한 아이라인 비비드톤 레드계 입술표현 인위적인 메이크업	조미령 단아하고 조선한 이미지 김지미 임체적, 현대적 이미지 최은희 동양적·고전적 이미지 
1960년대	4.19혁명 청년문화 5.16 쿠데타 문화 주체성 확립 자립경제 기반 가치관 변화 대중매체의 보급 한복차림 감소	서민층 대상의 멜로드라마 젊은 세대들의 스타일 추구-청춘영화 신과적인 멜로드라마 문예영화	국산화장품 보호 정책 화장품산업 육성 메이크업 제품 개발 시작	핑크계 피부표현 굵고 확실한 눈썹 비비드톤, 스트롱톤 두꺼운 눈썹 아이섀도우 사용 또렷한 아이라인 인조속눈썹 마스카라 라이트톤 베이지 핑크펄, 브라운계 립스틱 입술선을 강조	핑크계, 오를계 피부표현 두꺼운 눈썹 인조속눈썹 비비드톤 블루계 아이섀도우 브라이트톤 핑크계, 비비드톤 레드계 입술표현 입체메이크업 시작	1대 트로이 카* 문화-청순하고 고상한 서구적 이미지 남정암-지적, 세련미, 천화력 있는 이미지 윤정희-신선하고 서구적인 이미지 
1970년대	유신과 정치· 사회적 경직 소비 구조 변화 TV 전국적 보급 대중문화 발전 여성 인력 증가 청바지, 통키타의 청년문화 내수 의류산업 확대	검열로 표현 제한 젊은이들의 우울한 자화상 -문예영화 성을 상품화 호스티스물 범람 청춘영화	화장품 산업의 기술적 진보 메이크업 캠페인의 영향 토털 패션과의 조화 T.P.O 메이크업 소개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가늘고 짧은 눈썹 다양한 색채사용 스트롱톤 핑크계, 오렌지계 립스틱 불тер치의 강조 T존·V존 하이라이 트, 노즈섀도우 입체감표현	오를계 피부표현 가늘고 진한 눈썹 덜톤 오렌지브라운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마스카라 불터치 메이크업 스트롱톤 오렌지계 입술표현 윤곽강조	2대 트로이 카* 장미희-지적, 우아한 이미지 정윤희-세련미, 섹시함, 서구적 이미지 유지인-도시적이고 서구적인 이미지 
1980년대	강압정치 광주 민주화 운동 88 서울 올림픽 한국적 아름다움 표현 교복 차용화 신세대 등장 여성들 지위향상 여성전문지 창간	민주화 요구 검열완화와 칼라 TV 등장 이후 상업화 요구 사회적 현실 인식과 비판- 리얼리즘영화 멜로에 로티 시 즘 영화	화장품 성장시대 칼라 혁명기 메이크업의 보편화 스타일의 다양화 유행주기 단축 메이크업 뷰티 아카데미 등장	깨끗한 피부표현 진하고 가는 눈썹 라이트톤 브라운계 아이섀도우 코랄색상, 황금색의 조화, 차분한 색상 자연스러움과 뚜렷 한 아이라인 병존 마스카라 비비드톤 붉은 입술-오렌지빛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브라이트톤 핑크, 오렌지, 브라운계 아이섀도우 라이트톤, 비비드톤 베이지, 오렌지계, 붉은 입술	3대 트로이 카* 원미경-경쾌하고 확실하면서 청순한 이미지 이보희-섹시하고 지적인 이미지 이미숙-성숙하고 고혹적인 이미지 

1990년대	지식·정보 산업 발달 례저·여가활동 소비문화 변화 영상매체의 발달 대중상품 일반화 여성의 전문적 진출 신세대 문화 출현 환경문제 인식 자연지향적	영화의 산업화 대형화, 상업화 복합 상영관 등장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상승 국제영화제 진출 한국영화의 장르 다양화 로맨틱 씬스 코미디 블랙 코미디 독립영화 판소리 영화 기록영화 리얼리즘 영화 멜로영화 액션 멜로	화장품 고급화 전문화 리뉴얼 제품 증가 화장품 회사-고 객만족 무한 경쟁 체제 메이크업 학문 확대- 전문화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장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표현 짙고 눈썹으로 끌은 얇게 표현 퍼플계 에클로지 풍, 오리엔탈 이미지 계열 색상 아이섀도우, 광택의 아이섀도우 유행 아이라인은 부분적 으로 표현 아이홀 메이크업 눈매를 크게 강조 마스카라 눈매표현 칼라 마스카라, 다크톤 브라운 계 립스틱	각진형의 눈썹 아이섀도우 눈꼬리 포인트 기법 다크톤 브라운, 와인계 립스틱 후반- 케익 타입의 아이라이너 브라이트톤 핑크, 오렌지계 립글로즈 사용	초·중반 4대 트로이카* 심혜진-시원하고 도회적인 이미지 강수연-당당함, 자유분방 하고 섹시한 이미지 최진실-솔직하고 애교가 있는 깜찍한 이미지 
	한일 월드컵 계기 코리아 열풍 디지털시대- 온라인화 대중문화 공간확산 개인공간 확대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 유행의 급속한 변화 다양한 트렌드 공존	코믹, 멜로, 사극, 조폭, 공포 영화- 퓨전 영화 다양화 대형화	고기능성 화장품 생산 증가 품질 고급화 화장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 화장품 이미지 제고 고객감동 극대화 매년 사계절 유 행 메이크업 패션 쇼 토털 뷰티 아티스트 등장 전문화, 세분화	투명 메이크업 럭셔리한 피부 질감표현 스모키 아이, 비비드한 칼라 아이섀도우 자연스러운 눈썹 글로시한 입술표현	투명한 피부강조 자연스러운 아이섀도우 펜슬타입의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비비드톤, 브라이트톤의 립글로즈 펄 사용	충무로 5대 신 트로이카* 강혜정-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개성 있는 이미지 임수정-여성스럽고 순수한 이미지 문근영-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이미지 

제 1 절 1950~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1.1 1950~1960년대에는 비비드톤, 브라이트톤 등 채도가 높은 색상들이 유행하였으며 입체적인 메이크업이 시작된 시기로 밝고 하얀 피부의 표현으로 하이라이트용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브랜딩 파우더로 블루밍 효과를 주었다. 눈썹은 굵고 진하게 그렸으며 눈두덩이와 눈밑에 비비드톤의 블루칼라(Hell Blau)를 바르고 눈꼬리 부분은 스트롱톤의 블루칼라(F3) 아이섀도우로 포인트를 주었다. 더블 콤팩트의 칼라를 이용하여 볼터치와 음영을 주어 표현하였고 입술은 비비드한 붉은색(L318)으로 곡선처리 하였다. 전체적으로 진하고 인위적인 느낌으로 여성스러우면서 섹시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중앙에 백콤을 넣어 풍성한 볼륨감을 주고 웨이브가 있는 단발머리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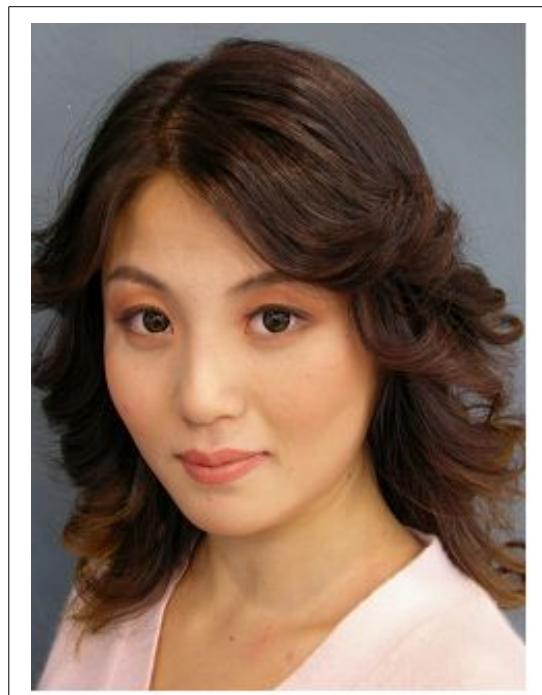


<그림 116> 1950~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제 2 절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2.1 1970년대에는 60년대보다 대체적으로 톤이 낮아졌던 시기로 오를계 피부표현과 눈썹이 좀 더 자연스러워 졌고 넓게 펴 바르는 아이섀도우 기법으로 라이트톤의 오렌지칼라(Mandrin)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른 후 중간톤의 오렌지브라운(TV-Braun) 섀도우로 아이홀선에 표현하고 쌍꺼풀 부위에 덜тон의 브라운과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자연스러운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눈매를 연출하였고 입술은 너무 크지 않게 라이트톤에 가까운 오렌지와 브라운 중간칼라인 L6으로 선택하였다. 볼티치와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으로 마무리 하여 보이쉬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긴 웨이브의 바깥말음으로 바람머리를 연출하였다.



<그림 117> 197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제 3 절 198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3.1 198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브라이트톤, 라이트톤, 비비드톤 등의 화사해진 경향이 나타났던 시기로 Peach(OB2, NB4)색상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톤을 표현하고 눈썹은 브라운, 검정칼라 아이섀도우와 페슬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하며 뚜렷하게 표현한다. 비비드톤의 핑크칼라와 오렌지칼라를 그레이션하고 화이트 펄을 사용해 눈밑 앞머리에 깨끗하고 화사함을 강조하면서 세련된 눈매를 연출하였다. 입술은 비비드톤의 핑크칼라(L1)와 라이트톤의 오렌지칼라(Coral) 립스틱을 사용하였다. 볼터치는 광대뼈를 감싸면서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앞머리가 있는 웨이브의 긴 머리를 연출하였다.



<그림 118> 198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제 4 절 199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4.1 1990년대에는 다크톤과 브라이트톤의 색상이 병존했던 시기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하였으며 각진형의 눈썹을 표현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아이섀도우 덜톤의 그린(912)과 딥톤의 블루(754)로 그라데이션하여 눈꼬리쪽에 포인트를 주고 눈밑은 라이트 퍼플 칼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케익 타입의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아이섀도우와 그라데이션하고 입술은 투명 핑크와 글리터 핑크칼라를 사용해 혈색을 부여하며 볼터치도 브라이트톤의 핑크칼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섹시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개성화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굵은 웨이브의 자연스러운 긴 머리를 연출하였다.



<그림 119> 199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제 5 절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5.1 2000년대에는 피부에 중점을 둔 투명한 칼라톤이 유행되어진 시기로 틴티드 모이스춰라이저 파운데이션과 투명 파우더로 자연스럽고 깨끗한 피부를 강조하고 눈썹은 있는 그대로의 눈썹을 살리면서 직선형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페일톤의 엘로우 칼라(AB9)를 눈두덩이에 바르고 라이트한 브라운(RB7)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였다. 눈 앞머리에 화이트 펄과 엘로우 금색 펄을 사용해 깨끗한 눈매를 연출하고 펜슬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에 메꿔주어 마스카라로 자연스럽게 컬을 만들어 준다. 입술은 투명 핑크칼라로 혈색을 부여해 전체적으로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앞머리의 귀여움과 긴 생머리의 청순함을 연출하였다.



<그림 120>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제 5 장 결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는 크게 확대되고 발달됨으로써 문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중 영화는 대중문화의 세계에서 여러가지 유행을 주도하면서 문화의 형성 및 반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정보전달과 문화적 수준향상과 함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산업 발달로 메이크업의 분야는 많은 대중들과 스타들의 이미지 전달의 한 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점점 미적 욕구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수많은 세월을 지속하여 고유 전통메이크업에서 새로운 서양영화나 서양문 물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서구식 메이크업을 수용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메이크업 형성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의 흐름, 그리고 화장품 산업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현재 산업사회로 전환과 함께 메이크업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고 사회·문화적 발전과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이 메이크업의 변화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를 통해서 본 메이크업이 사회·문화적 배경, 영화의 흐름 그리고 화장품 산업발달과 대중적인 메이크업 경향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1950년대 이후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분석에 따른 이미지를 재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메이크업 문화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서양영화의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졌고 전통 사회에서 근대사회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대중매체 보급의 영향으로 서구식 메이크업 패턴이 한꺼번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인해 자유로운 색상의 표현이 다양해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지향적이며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메이크업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둘째, 한국영화에 제작이 점차 발달되었지만 1980년대 칼라 TV 등장과 88 올림픽 이후 색상의 혁명기 시대로 대중매체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TV, 광고 역시 유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화장품 산업발달은 메이크업 변화과정에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메이크업 도입기에 불과했으나 본격적으로 지금의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도 기술제휴와 수입 자유화가 활발해지면서 선진화된 화장품 기술에 의해 피부에 대한 건강과 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기능성제품의 고급화,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토템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트렌드의 성향을 나타내는 메이크업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흐름은 대중적인 메이크업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195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은 인위적이고 진한 메이크업으로 나타났고 한국적 정서의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연스러움보다는 많이 인위적으로 표현한 편이었다. 1970년대부터는 색조메이크업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1980년대에 이후 다양화된 색채의 표현으로 인위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표현되어 진다. 1990년대 이후 현재에는 다양한 영화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의 메이크업과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개성화된 메이크업들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꾸며낸 아름다움보다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점차적으로 유행되고 있다. 즉 현재에 어울리는 여성상인 다양한 캐릭터로 진화되면서 시대상을 반영함을 알 수 있고 대중들의 동경으로 인해 유행을 파생시킨다.

다섯째, 메이크업에 있어 10년 단위 내에서도 점차 유행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개성과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195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통해 본 메이크업의 흐름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영화의 흐름에 따른 여배우, 화장품 산업발달에 의해 메이크업 경향이 계속 변화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과 다극화 시대, 다양한 이미지의 유행 흐름이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우리 영화가 주연 남녀배우의 이름이 제1순위의 흥행요소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예전처럼 무조건 예뻐보이려는 메이크업이 아닌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의 추구와 개성있는 이미지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토템 개념의 종합적인 요소들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영화 선정시 특별한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아 극 중 인물의 캐릭터에 의해 좌우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에 나타난 내추럴 이미지나 복고풍의 유행으로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개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하였으며 앞으로의 메이크업 흐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 변화」, 도서출판 일념, 1985.
- 김종원·정중현, 「우리 영화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 민병기 외, 「한국영상문화」, 서울: 문예마당, 1998.
- 박용현,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손 용, “대중문화와 영화예술”, (월간)영화, 1998
- 성필원, 영화 포스터로 보는 50~60년대 흘러간 명화, 도전과 성취, 2000.
- 이강수, 한국 대중문화론, 서울: 법문사, 1987.
- 양기주, 「한국영화 80년 上·下」, 한국 사진문화원, 1999.
-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
- 이효인 외, 「한국영화사 공부」, 이채, 2004.
- 영화진흥공사, 「사진으로 본 한국영화 60년」, 서울: 교육과학사, 1980.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 70년-대표작 200선」, 서울: 집문당.
- 주유신 외,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2. 논문

- 김경자, “한국 영화 포스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용미, “해방 이후 한국 화장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권혜옥·유송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

인문과학연구소 제26집, 1996.

이주현,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200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조명자, “한국 화장 문화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은기,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채정선, “한국 영화 포스터의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1990~2000년에 제작된 포스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3. 인터넷

<http://cafe.daum.net>

<http://everyoung.ne.kr>

<http://kr.image.yahoo.com>

<http://kr.movie.yahoo.com>

<http://movie.daum.net>

<http://user.chollian.net>

<http://www.cineoseoul.com>

<http://www.donga.com>

<http://www.ihkcos.co.kr>

<http://www.koreafilm.or.kr>

<http://www.lamy.co.kr>

<http://www.leekyungmin.co.kr>

<http://www.movist.com>

<http://www.sidus.net>

4. 국외문헌

Garth Jowett & James Linton, Movies as mass communication, 김홍순(역),
『영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 나남출판, 1994.